

금주의 기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심을 행치 못함으로 자원이 훼손되고 있음을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잘 지키고 보존하도록 지혜와 마음을 주옵소서, 주에 수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11절

지구의 허파 아마존 화재로 병들어간다!

세계 언론, 브라질 아마존 대형화재와 황폐화, 이를 막기 위한 개인 실천 보도

자국의 소유물이지만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기 힘든 땅이 있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가 그렇고, 한국의 DMZ가 그렇다. 독립적인 땅인 동시에 세계인이 함께 보호 의무를 나누는 땅이 존재한다. 3주째 거대한 화재에 휩싸인 아마존도 바로 그러한 땅이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거대 우림으로 중요한 탄소 저장고이자 300만종 이상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백만명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다. 역대 최악의 화재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의 영토인 치키타노 생태지역, 차코 산림, 판나탈 습지, 세르라도 평원도 이 때문에 훼손되어 가고 있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등 이웃 국가의 상공이 화재 연기로 뒤덮인 위생사

진도 최근 공개됐다. 아마존이 불타면 거대 우림은 탄소 저장고에서 도리어 저장된 탄소를 내뿜는 폭탄이 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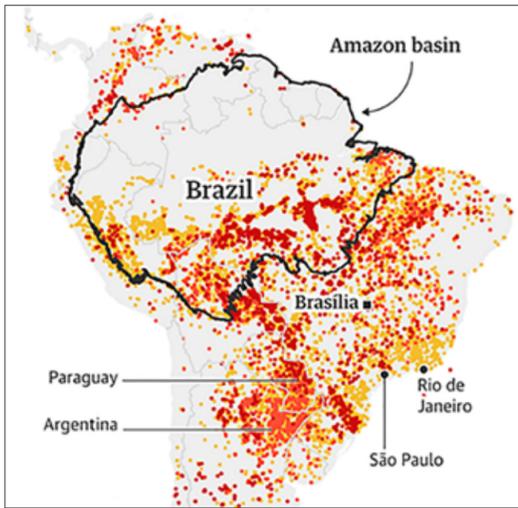
가디언, 뉴욕타임스, 뉴스위크, BBC 등 세계 언론은 최근 이상 기온 현상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마존 화재 원인과 대책을 연일 보도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Amazon fires: what is happening and is there anything we can do? Guardian, Amazon Rainforest Fires: Here's What's Really Happening NY Times, How much beef consumption can our planet sustain? Burning the Amazon to produce more cattle, Christian Century).

아마존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상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농지 확보를 위한 열대우림 파괴를 아마존 화재 대형화 원인으로 지목했고, NASA 바이오스피어사이언스연구소의 더글러스 모튼은 화재 감지 시기와 화재 위치를 볼 때 토지 개간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팜유 농장과 마찬가지로).

토지 개간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벌목과 화재가 뒤따른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브라질의 농업 로비는 2005-2014년 성공한 보호시스템을 약화시켰으며, 2019년 7월에는 산림 벌채가 그래프 수치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재 아마존은 1분당 축구장 5개 정도의 숲 면적이 사라지는 속도로 불이 번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한 달간 2,254km²가 손실됐으며,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78% 증



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울(약 605km²)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이다. 아마존에서 숲이 사라진 곳의 65%가 방목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외신은 방대한 목축산업을 아마존 황폐화의 주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게다가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영토주권과 자원개발논리

를 앞세워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광업과 축산업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아마존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한 국립 우주연구소의 하카르두 가우방 소장을 브라질의 국가평판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무장 금광개발업자들에게 의해 아마존 원주민 지도자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아마존 화재가 심각한 국제적 사안인 이유는 무엇인가?

BBC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21일 사이 아마존 우림에서 9,5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해와 비교해 브라질 전역에서 78,38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불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 산림을 불태웠거나 환경훼손 벌금은 6,895건에 그쳤다(29% 감소). 이에 대해 브라질 환경장관을 지낸 마리아 시우바 전 상원의원은 "반국토 범죄, 반인륜 범죄"라고 비난한 바 있다.

24일 미국 시사주간 '에클렉틱'은 "아마존 화재는 대량 살상무기(WMD)보다 더 무섭다"는 머릿기사와 함께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겨냥해 "(지구의) 기온상승을 완화하는데, 한 사람이 인류의 나머지 전체를 망치는 정책을 세우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중동 내 수니파 세력분포도. 색이 진할수록 세력이 강한 곳이다.

중동의 양극, 사우디-이란 관계 갈수록 악화 BBC, 사우디 원유시설타격 통해 더욱 깊어진 갈등 원인 보도

최근 사우디 원유 시설 타격 등으로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최근 들어 더욱 관계가 악화됐다. 수십년간 반목을 겪어온 두 나라 관계가 어땠는지를 BBC가 정리했다(Why Saudi Arabia and Iran are bitter rivals).

중동의 강대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이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치열히 투쟁해왔다. 불화는 수십년 넘게 이어졌는데, 교파 차이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이슬람이지만 이란은 대부분 시아파 이슬람교도인 반면, 사우디는 수니파 이슬람 세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종교적 분열은 중동 전체로 확장된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지원이나 지도 등을 기대하며 각각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의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군주국이자 이슬람의 발상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스스로를 이슬람의 '지도자 국가'라

고 생각한다. 그러나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적 신권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국가가 나타난다. 이란은 자국 국경을 넘어 이런 국가형태를 퍼뜨려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첨예해졌다.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은 이란의 주요 적이었던 수니파 사담 후세인을 전복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라크에는 시아파가 지배하는 정부가 문을 열었고, 이란의 영향력은 그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인터뷰 피터박 목사 16면

ATS와 ABHE 권위 인정 최고급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www.wmsu.edu | (714) 33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특수교육 / 성구 / 생애 학과 / 개인 / 교회음악 / 영성성장 / 영안기부서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0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lenheim Terrace Park Ridge,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용품, 영성공학기, 생가독집 수문 제작, 탁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330-8080 | bibwestore@gmail.com
96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제 26회 한미연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UNITED INTERNATIONAL
담임목사 한기홍

목회자 사모 세미나

“**심,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

일 시: 2019년 10월 7일(월), 8일(화) 10:00am~9:30pm
장 소: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비전센터 2층)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대 상: 목회자(목사, 전도사) 사모
참 가 비: \$20(선착순 100명)
강 사: 피종진목사(남서울중앙교회),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설동욱목사(예정교회), 박태남목사(정릉뽕엘교회), 정삼숙사모(성안교회)
주 최: 목회자 사모신문(이사장 피종진목사, 발행인 설동욱목사) 미주복음방송(이사장 한기홍목사, 사장 이영선목사)
문 의: 김대섭행정목사(714.336.4478 / dskim143@gmail.com)

발행인 칼럼

모든 상처에는 이야기가 있다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지난 월요일 아침 사람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그들은 주일 사역 후 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뉴욕으로 달려왔는가. 제 71차 국제전도포럼 지도자 임상훈련 때 문이었다. 초면(初面)이기도 하고 구면(舊面)이기도 한 스태프, 훈련자, 훈련생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훈련은 시작되었다. K 목사님, 미주 전도포럼훈련 사역에 대부(大父)와도 같은 분이시다. 은퇴 후에도 세계 곳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이번 훈련에도 여러 강의를 맡으셨다. 그 날 오후 강의 중에 뒤로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셨다. 누워 계신 뒷마리에서 피가 흘렀다. 의식은 있으셨으나 기억은 잠깐 잊으신 듯하였다. 911을 통해 앰블런스가 곧 도착하였고 병원으로 옮기셨다. 병원에서 여러 체크(check)를 하였지만 다른 이상은 없으셨고 기억은 다시 분명해지셨고 찢어진 뒷마리만 아물면 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날 밤늦게 퇴원하셨다. 아무리 아문다 하여도 상처(傷處)는 남을 것 같다. 그 상처는 이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K 목사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무엇이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아팠나..." 그러지 않으실까. 그 날 저녁 전도대상자들을 향해 나가는 모든 훈련자들과 훈련생들은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절절히 느끼며 나갔다.

상처 없는 자가 누구 있겠는가. 누구나 어딘가에 상처가 있다. 몸에도 마음에도 아픔의 상처들이 여럿 있다. 상처가 날 때 반드시 비명만이 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김재진 시인은 풀은 상처가 날 때 비명대신 향기를 낸다고 한다. "베어진 풀에서 향기가 난다. 알고 보면 향기는 풀의 상처다. 베이는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만 비명 대신 풀들은 향기를 지른다. 들판을 물들이는 초목의 상처 상처가 내뿜는 향기에 취해 나는 아픈 것도 있다. 상처도 저토록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날 밤, K 목사님을 병원으로 찾아보았을 때 침대시트에는 여전히 피가 묻혀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감사할, 우리에게는 미안함을 토로(吐露)하셨다. 병상(病床)에 둘러 있던 사람들은 상처를 가진 자로부터 비명(悲鳴)을 듣지 않고 향기(香氣)를 맡았다. 복음 때문에 갖게 된 아름다운 상처의 향기를.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맛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바울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는가. 그 상처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리라. 바울은 자기의 상처에 이름을 붙였다. "예수의 흔적(痕跡)"이라고. 자기의 상처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았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었겠는가. 바울은 상처를 흔적이라 말했고 마침내 목베이는 마지막 고통도 순교의 이야기로 승화(昇華)시켰다. 상처는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다. 자해(自害)도 있다. 화가(畫家) 반 고흐가 그랬다. 스스로 자기 귀를 면도칼로 잘랐다. 그리고 귀에 붕대를 감은 자기의 모습을 자화상(自畫像)으로 그렸다. 그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붕대로 감아 보이지 않는 귀의 상처에서 잘 보이지 않는 슬픈 이야기가 들린다. 훗날 그는 총(鎗)으로 자기의 가슴에 귀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비틀거리다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고흐의 그림들은 다분히 영적인 데도 자기의 아픈 상처를 끝내 극복 못한 신음(呻吟)과도 같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모든 상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놀랍게도 모든 상처 이야기는 신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환희(歡喜)로 들리기도 한다.

황무한 세상 곳곳에서 '거름'의 삶 살라!

CT, 뉴욕 킹스칼리지 종교학 앤서니 B. 브래들리 교수의 '예수님의 소금비유' 소개

뉴욕 킹스칼리지 종교학 교수인 앤서니 B. 브래들리(ANTHONY B. BRADLEY)는 누가복음 14장 34-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금 비유가 바로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말씀이라고 고백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금

비유는 거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You Are the Manure of the Earth: Jesus' metaphor about salt was actually about fertilizer).

님 시대의 소금들은 매우 적은 양의 황산칼슘(석고)을 함유하고 있는 염화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칼륨의 화합물이었다.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용해됐지만, 어떤 것은 성분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었다. 농사를 짓는 데는 보통 더 딱딱하고 "더 짠" 소금이 더 가치가 있었다. 더 딱딱하고 더 짜다는 것은 곧 이로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클렘슨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처음 잡은 직업은 애틀랜타에 있는 작은 제약회사에서 품질 관리 약제사로 일하는 것이었다.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내가 실험실에 갇혀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을 즐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토양학과장이었던 유진 P. 디트리크 교수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35절에서 예수님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농업용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

에 나온 또 한 편의 논문이 있다. 농업에 가치 있는 소금의 속성에 관한 로버트 노포크의 논문이 그것이다. 학술상을 받은 이 논문은 소금이 농사에 사용된 연원이 매우 오래됐다고 말한다. 그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을 활용했다"고 말하면서 열왕기하 2장 21절과 누가복음 14장 34절을 인용한다. 농업용 소금에 관한 이 논문은 특히 누가복음 14장 34절을 사제로 들어 예수

처음에 나는 의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서 대학에 입학했지만, 졸업반 때 영적 깨달음이 있는 뒤에 의학전문대학원 대신에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런 연유로 나는 머릿속에 과학을 넣어둔 채 성경을 배웠고, 이것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통찰력을 얻는 지속적인 원천이 됐다.

디트리크 교수는 팔레스타인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소금과는 다른 소금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암염도 그 가운데 하나인

예를 들어, 최근에 나는 누가복음 14장 34-35절을 강의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



예수님이 "짠맛"을 잃은 소금에 관해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의 성분들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내포돼있다.

분해된 소금은 소량의 석고를 상실하는데, 이때 "짠맛"이 사라진다. 이 짠맛의 변화가 일어나면 땅을 비옥하게 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소금의 속성들, 곧 생명과 성장을 가져오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식용 소금이 아니라 거름용 소금에 관해 말씀하고 계셨다면, 이것은 마태복음

소금으로의 부르심은 망가진 사람들에게로의 부르심 식탁용뿐 아니라 토양 성장 촉진하는 소금 사명완수

던 청중은 소금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소금이 팔레스타인에서 거름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나의 관점을 영구히 바꾸었다. 전에는 다소 이상한 부담이었던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크리스천의 삶과 사명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 됐다.

데, 이것은 사해의 물에서 농축된 소금이다. 소금 구멍이도 있고(스바냐 2:9), 그밖에 다른 것들도 있다. 덧붙여서, 디트리크 교수는 "거름으로 사용된 소금에 관한 농업 관련 문서들이 매우 많다"고 이 논문에 적고 있다.

농업용 소금에 관해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35절에서 소금에 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1세기에 사용된 몇 종류의 소금을 가리키고 계셨다. 이 소금들은 현대인의 주방 식탁에 놓여있는 소금(식염)과는 달랐다. 예수

5장 13절의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소금"으로 더 쉽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을 위한 소금"으로 번역하면, 누가복음 14장 34-3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Don't Give Up,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게 힘을 주는 교회, 행복예수,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기독교서적, 두란노서원, 말씀사, 베델서적, 조이서적.

지구의 허파 아마존 화재로 병들어간다!

(1면으로 계속)
 (The Amazon Fires Are More Dangerous Than WMDs: One person shouldn't have the power to set policies that doom the rest of humanity's shot at mitigating rising temperatures).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과 유엔 사무총장 또한 브라질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24-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는 아마존 화재가 "국제적 위기, 긴급 현안"으로 제안됐는데,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식민지 시대적 정서이며 그들이 정치적 이익을 쫓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존 방화를 해결할 자원이 없다면서도, 서방의 '아마존 기금' 예산 동결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모순을 보였다. 최근에서야 브라질 정부는 화재진압을 위한 군 병력의 투입을 지시했는데, 이 배경에는 유럽연합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금지, 자유무역협정 재고 등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 경고가 작용했다. 거대한 화마에 고통을 겪고 있는 야생동물과 원주민이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과학자들은 아마존이 티핑포인트(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의 단계)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건조한 사바나 지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르는 주요 7개국(G7)의 아마존 산불-진화를 위

한 원조를 거부해왔으나 유럽연합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금지, 자유무역협정 재고 등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 경고에 영국정부의 원조를 수용했다.

아마존 화재와 황폐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숲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삶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쇠고기는 안 먹고 육류소비를 줄이거나 비건 식단을 지향할 수 있다. 비건은 지구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더 건강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아마존 화재는 가축을 키우기 위한 사육지 확장과 가축을 먹이기 위한 작물재배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인위적 방화가 주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아마존과 같은 비옥한 이탄지대를 없애는 팜유(팜오일)가 들어있는 제품의 소비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라면, 과자와 같은 생활용품과 립스틱 같은 화장품까지 광범위하게 들어있지만 신중하게 프리팜유 제품을 선택하고 아울러 팜유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있는 환경단체에 기부하거나 관련청원에 서명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현재 아마존 리오 브랑코(Rio Branco)에 거주하는 변호사인 가브리엘 산토스가 Change.org 청원서(청원서 링크)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Stop the burning of the Amazon rainforest!). 브라질 정부에 아마존 화재 증가의 원인을 조사하고 화재중식을 요청하기 위한 해당청원서의 서명 수는 현재까지 4,410,594개이며, 450만 도달을 앞두고 있다.

중동의 앙숙, 사우디-이란 관계 갈수록 악화

(1면으로 계속)
 2011년 '아랍의 봄'이 지역 전체 정치적 불안에 더욱 야기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영향력 확대를 위해 특히 시리아, 바레인, 예멘 등을 둘러싸고 서로 의혹의 눈초리를 높였다.

시리아 내전도 갈등을 증폭했다.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단체들을 대부분 물리쳤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상하는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필사적이다. 이에 실질적 통치자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임지가 굳건해지면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내세워 지역간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는 예멘에서 후티 반군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이란의 영향을 막기 위한 선행이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값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도박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동맹인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가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세력이 강력하다. 많은 이들은 사우디가 2017년 헤즈볼라의 지역분쟁 연루와 관련해 지지를 표명한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에게 사임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리리 총리는 이후 레바논으로 돌아와 사임을 보



중동 내 시아파 세력분포도. 색이 진할수록 세력이 강한 곳이다

류했다. 중동 지역의 패권은 수니와 시아파로 갈린다. 친사우디 진영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이집트와 요르단이 있다. 반면, 친이란 진영에는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 레바논에 거점을 둔 헤즈볼라 등이 있다.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도 친이란에 속한다. 하지만 역

설적이게도 이슬람국가 격퇴가 필요한 미국 정부와 이라크의 시아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우디와 이란의 대결구도는 어떻게

만 수로를 두고도 갈등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외국 유조선이 억류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 물론 아직 두 나라는 전면전에 돌입하진 않았다.

예멘은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들어나는 곳이다. 아직까지는 대리전을 벌이고 있지만 후티 반군이 사우디 수도를 공격하거나 최근에 있었던 경우처럼 주요 경제 인프라를 파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오랫동안 미국과 미 동맹국들은 이란을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여겨왔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이란을 점점 더 실존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든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이 공격당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전개된 양상을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이는 계획된 것이기보다는 우발적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불확실한 목표는 사우디 내 행동주의적 요소를 자극하고 있고, 이는 다시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론

'그랭이질' 신앙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흠바닥 위에 세운 기둥은 상식적으로 깨지고, 썩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오래가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옛 시절 집을 지을 때는 기둥 밑에 주춧돌을 받쳐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얻는 다양한 돌들의 모양은 울퉁불퉁 제멋대로이기 마련입니다. 톱과 대패를 이용해서 만든 나무기둥의 단면은 평평해집니다. 그러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얹기 위해서 단단한 돌을 어렵게 평평하게 깎는 것보다, 옛 장인들은 더 깎기 쉬운 나무기둥의 단면을 울퉁불퉁한 주춧돌의 단면과 꼭 맞도록 깎아내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주춧돌의 표면과 나무기둥이 꼭 맞도록, 기둥의 단면을 깎아내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그랭이질이 잘된 기둥은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단단하고 깨끗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주춧돌이 매끈한 돌이라면 기둥이 밀려갈 수 있지만, 한옥의 경우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 서 있어서 쉽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울퉁불퉁한 면이 기둥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한 제주의 돌담들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다르게 생긴 돌들끼리 아귀를 맞추기 때문에 서로를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피운 글).

'그랭이질 기법',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그 위에 내 인생을 놓고, 깎고 가다듬어 딱 끼워 맞춰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춧돌인 성경 위에 얹어놓고 비쭉비쭉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과감히 잘라내고 움푹움푹 들어간 부분들은 주저함 없이 말씀으로 채워 넣어 나 자신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성경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랭이질 기법으로 지은 한옥이 주춧돌과 나무기둥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겨 잡아주는 힘이 있어 지진과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나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든 든든하게 견디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나 자신의 인생을 맞춰 나가,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워 그 위에 인생을 세워나간다면 사단과 마귀의 시험과 세상이 주는 유혹이나 어떤 환란이 닥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당당하게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마7:24-25). '그랭이질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흠바닥 위에 자기 인생의 기둥을 세웁니다. 비가 오면, 인생의 환란이 닥치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마7:26-27). '허무한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춧돌이 예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이긴 믿을 수 있고 저긴 믿을 수 없는 '부분적 순종의 신앙',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도 수고하는 시간, 사용되어지는 물질, 섬기는 달란트 등등에 있어서 이긴 너무 많이 이 정도면 모든 게 다 적당해 라고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려는 '편의주의적 신앙',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이리든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아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지야 라는 '혼합주의적 신앙' 등등이 모두 다 "위조된 신앙"입니다. 자기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신앙일 수 없는, '신앙인 거처럼 보이는 신앙'일 따름입니다. 이것을 가르켜 성경은 "스스로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리석기에 방자하여, 교만하여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잠 14:16...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바울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던 사울이었을 때 이랬습니다(행 26:9,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제 우리 신앙을 '리셋'해야 합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편의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으로,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선명한 신앙'으로, "스스로 믿는 방자한 신앙"에서 "성서적 신앙"으로 나 자신을 리셋해야 합니다. 바로 주춧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끼워 맞추는 일명 "그랭이질 신앙"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는 교회 안에서 도 이 '그랭이질'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다면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람이 강한 제주의 돌담(교회)들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다르게 생긴 돌(성도)들끼리 아귀를 맞추기 때문에 서로를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우리 신앙을 한번 그랭이질 신앙으로 리셋시켜서 그때 임하시는 보다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계절이 되어 봄은 어떨는지요?

담임목사 청빙

본 교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PCA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주일 두 번 (1부, 2부) 예배를 드리며 복음 전파와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 온 교회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1. PCA 소속이거나 가입에 적합하신 분
2. 정규 신학교를 졸업,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본 교회 소정양식) 및 가족사진
2. 최근 설교 2편 (음성/영상 파일 혹은 웹 주소)
3.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력서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kucp.org/pastorinvitation>

제출 및 문의처

이메일(PREFERRED): PulpitCommittee@kucp.org
 우편 주소: Pulpit Committee KUCP
 PO Box 7109
 Elkins Park, PA 19027

제출마감: 10/20/2019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깨어짐(Broken)

몇 년 전 플러턴 지역에 지진이 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수도관이 파열되고, 정전이 되고, 담장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고, 부엌의 그릇들이 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예

외는 아니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문틀이 휘둘러 문이 잘 안 닫히고 정원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아끼던 찻잔들이 깨져서 아내가 매우 섭섭해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깨어짐 중에도 관계의

깨어짐에서 비롯된 아픔과 좌절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씨앗이 담긴 깨어짐도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가 깨어져야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속에서 깨어질 때 새 싹이 돋아납니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깨어짐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깨어짐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깨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의존의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나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의 배속에서 요나의 자아를,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의 자아를, 몸의 가시를 통해 바울의 자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날도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거둬진 사업실패, 반항하고 대드는 사춘기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삶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절망으로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분을 대면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신령과 진

정으로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샤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의 자아가 깨졌습니다.

깨어짐은 나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일을 멈추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내 실력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세

상적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어짐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깨어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아무도 꺾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아집이 깨어져야 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나의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의인인식과 정죄의식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강한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내 영혼의 깨어진 질그릇에 담긴 예수님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연약한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푸/른/초/장

이종태 목사
(뉴욕 심령이간한교회)



신앙생활하기 힘든가? 왜 힘이 드는 것일까? 너무 무섭게 질책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드는가?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힘이 드는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이 드는가? 그것도 아니면 옆에 앉아 있는 교우로 인해서 힘이 드는가? 혹시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문제가 있기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닐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이들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거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첫째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셋째 역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써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때 영혼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가? 왜 그렇게 됐는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토록 영혼 구원이 힘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바르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써의 본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본문에서는 새 사람의 생활의 보다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웃에 대한 악덕을 경계한 후에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할 덕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과,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말고, 오래도록 분노를 품지 않음으로써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빈곤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과 더러운 말을 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다.

영혼 구원은 나의 본 된 삶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데 그 첫 걸음은,

- 1. 이웃과 진실된 관계를 갖는 것 즉,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25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은 옛 사람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약1:19).

분을 참고 이겨내라는 것이다. 분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분은 여러 날 동안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다. 연약한 인간은 분을 오래 품고 있게 되면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다. 분을 참고,

받는 자니라”(골3:9-10).

거짓말은 새 사람을 입기 이전인 옛사람의 행동이니 이를 벗어 버리라는 것이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참 말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혼 구원을 해야만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진실하심을 본 받아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웃과 진실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영혼 구원의 지름길이다. 내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영혼 구원의 진실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2. 이웃과의 나쁜 관계를 오래도록 갖고 있지 않는 것, 분을 오래도록 품지 말고 즉시 해결하라는 것이다(26, 27절).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노엽게 하는 일이 있을 때 분노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곧 성내기를 더디 하라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

버리는 인내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분노를 오래 품고 있게 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분노를 폭발하게 함으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다.

분노는 미움과 오해, 악의와 보복감 등을 조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웃과의 나쁜 관계를 오래도록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영혼 구원의 길이다. 이웃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분이 끓어 오르더라도 참고 인내하여 용서할 때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이웃을 구원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 3.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힘을 쓰는 것-정직하고 근면하여 바른 구제를 하라(28절).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이나 세상일이나 결코 힘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법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4-35).

자신이 자비량 선교사로, 즉 스스로 일을 하여 선교비를 충당하는 가운데 구제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쏟았음을 본을 보이라 말하고 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힘을 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영혼 구원의 참된 길이다. 내가 부당하고, 내가 먼저 구제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는 우리를 바라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영혼 구원의 마음 받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추잡하고, 상스럽고, 음란하고, 모함하는 말 그대로 성도인 우리가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찌하든지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말로 상처 받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5. 거룩하지 못한 일로 인해 성령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성령님을 근심하도록 만들지 말라(30절)

성도들의 더럽고 함당하지 아니한 말과 여러 가지 죄악 된 행위들이 성령을 괴롭게 한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 6.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다(31, 32절)

죄악 된 속성들, 악덕의 근원들을 근본부터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근본으로 삼아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해야 한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마18:21-22).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과 같이 성도들도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나로부터 먼저 시작될 때 영혼 구원을 이루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성도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친절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늘의 가장 귀한 상급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

영혼 구원은 나의 본 된 삶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이웃과 진실 된 관계를 갖는 것을 통해 즉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과의 나쁜 관계를 오래도록 갖고 있지 않는 것을 통해 정직하고 근면하여 바른 구제를 해야 한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삼가고 선하고 옳은 말만을 해야 한다. 거룩하지 못한 일로 인해 성령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성령님을 근심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길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

pस्पcny@gmail.com

영혼 구원은 나의 본 된 삶으로부터

에베소서 4장 25-32절

는 것이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므로 거룩하지 못한 일로 인해 근심하게 된다. 그러니 성도는 거룩하지 못한 일을 행함으로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성령께서 친히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 된 행위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선한 일로 성령을 기쁘게 해야 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5:17).

거룩하지 못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성령을 거스름으로 서로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거룩하지 못한 일로 인해 성령을 괴롭게 하지 않을 때 영혼 구원의 마음의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영혼 구원 뿐만 아니라 내 자신조차도 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 인도함을 받아야

도인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근면하여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쓸 때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4.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덕이 되지 않는 말을 삼가고 선하고 옳은 말을 하도록 하라(29절).

“더러운 말”은 쓸 데 없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로 덕을 해치는 것이 되기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침과 같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을 해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밧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에는 화가 있도다”(마 18:6-7).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여 실족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CR- 99' 의 최종 결과와 후속 준비

먼저 여러 교회들이 서명하신 용지들과 인터넷 서명들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며, 이것은 앞으로의 캘리포니아에서의 중요 사안 결정(정식 발의안이 나올 때를 준비)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인 사회의 결단력 있는 서명운동은 앞장서 뛰고 있는 캘리포니아 신앙단체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불균형적인 진보우주로 구성된 의원들로 인해 'ACR-99'은 안타깝게도 결국은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1차: 민주당 소속 Evan Lo (Bay area, CA) 하원의원이 제출한 ACR-99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100% 찬성과 2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의 지지로 6월 중순에 통과되었습니다.

2차: 상원투표는 8월 말에 한번, 9월 5일 다시 두 번째에 걸쳐 투표를 했는데 총 29명의 민주당(Senate Majority) 100%가 찬성, 총 11명의 공화당(Senate Minority) 상원의원 중, 7명이 반대하고, 4명의 공화당(Senators Shannon Grove, R-Bakersfield), Patricia Bates, R-Laguna Hills), Ling Ling Chang, R-Brea), and Scott Wilk, R-Lancaster)들은 투표 때 불참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망하였습니다.

4차로 하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반대서명운동으로 인해, 9월 9일 다시 하원에서 최종 결정투표를 했지만, 역시나 민주당 100% 찬성(61) 그리고 공화당 반대(11명)으로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되었고, 결의안(Resolution)인 관계로 그리고 제출

한 민주당의 100%의 찬성이 있기에 주지사의 사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What's Next?? 후기 단계는 우선 4가지로 나눕니다.

△Be Proactive(능동적인 자세).

△Be Informed(올바른 정보로 무장! 가짜뉴스들은 경계).

△Be Ready to Fight the Good Fight(선한싸움을 할 준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이제부터는 ACR 99 전에 나왔던, 2018년에 나왔던 AB2943과 같은 더 강력한 유사법안이 나올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감 없이 전하는 교회들의 설교 강단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

18개나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다른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적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더 말씀을 앞에 두고 고민하며, 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상담과 돌봄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확실한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이 성도들이 성경말씀을 통해 세워져야 합니다. △차세대 확실히 성경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비도덕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변화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받고 기도하시고 영적전쟁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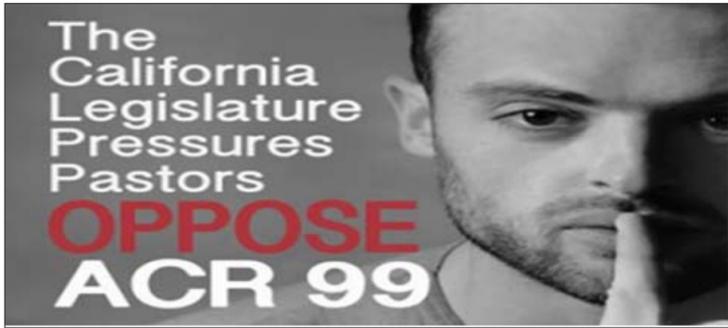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도 전환위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ACR 99 결의안"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의

목회자, 성도 그리고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은 주로 '사후약방문'의 상황이었지만, 이번 ACR 99 반대운동은 유사한 발의안들이 법안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할 지에 대한 좋은 예습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ACR99을 찬성 및 지지한 사람들 명단과 지금 캘리포니아에 나와 있는 차세대들을 위협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들은 tvnext.org로 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보로 무장하고 공유하실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전화번호와 이름, 호칭을 적어 연락을 주시면 정보들을 공유하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양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시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계속 기도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중보기도팀과 학부모 팀을 형성해주시길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반기독교 정책세력들이 교체되어야만 실제적인 변화가 캘리포니아에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캘리포니아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의 선출과 후진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믿음의 행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오바마정권부터 시작되어 이미 캘리포니아와 18세 미만 학생들이 동성애, 트랜스젠더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Conversion Therapy" 상담을 금지하는 것을 통과시킨 주정부들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최근에 한국의 광주와 영남지역의 교회 목회자 1천명 이상이 현 정권이 나라를 사회주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해서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구국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요?

-로스앤젤레스 강 집사

A: 사회주의(Socialism)나 공산주의(Communism)라는 말은 산업혁명이후 19세기 초엽에 프랑스 사상가 하티엘(Alexander Hatier, 1856-1928)이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했고 공산주의란 단어는 영국의 사상가 오웬(Robert Owen, 1771-1858)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공산주의란 말이 사회주의란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왔습니다.

독일의 칼막스(Karl Mark, 1818-1883)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면서 그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Dialectical materialism)과 유물사관에 의한 것인데, 그들의 이상은 자본계급(부르조아)을 타파하고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가 생산과 소비를 국유화 한다는 것입니다. 유물사관을 사회철학으로 하여 계급투쟁을 하는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는 자본계급과 지식계급과 기독교인들과 그 밖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인물들을 모조리 숙청하여 없애버리고 아편 같은 종교와 도덕도 다 없애버리고 생산기관이나 소비기관도 다 국유화 하겠다는 마귀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김홍도 목사가 2012년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기고문을 보면 "첫째, 공산주의는 평등주의(Equalitarianism)로 모든 재산을 공유하여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다. 칼막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전 세계 농민들이 다함께 일어나 모든 공장과 기업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소유를 만들자, 그것을 위해 살인 방화 폭력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골고루 못사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어

되어 거지토피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산주의는 무신론(Atheism)이며 유물론(materialism)이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며 기독교 말살론이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공산정권을 수립하자마자 먼저 교회를 파괴했고 목사를 죽였으며 주기철 목사가 시무하던 평양 장대현교회에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셋째 공산주의는 폭력주의(Terrorism)요 거짓말쟁이다. 공산당 마귀의 사상에 물든 중북 좌파들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며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Killing Field)를 보면 조용한 자유의 나라에 톨놀정권이 몰락하고 사회주의자 폴 포트가 정권을 잡으며 반미정책을 펴면서 인구 700만 명 중에 200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지식인, 종교인, 안경 쓴 사람, 손에 굳은 살 안박힌 사람, 외국인 재벌가들을 다 죽였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죽이고 비닐봉지로 씌워죽이고 생매장하고 도끼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해골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 킬링필드의 사건이 1975년 때의 일입니다. 월남이 공산화되었을 때도 종교인, 지식인 등 1000만명을 죽였습니다.

한국이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목사와 장로 및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법무장관 조국씨는 "자신은 사회주의자이며 한국에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의 헌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나라를 망치는 첩경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은 상극입니다.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마귀에서 난 것이므로 대적해야 합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말레이시아의 남부 사마족

말레이시아의 남부 사마족



말레이시아 남쪽에 있는 사마족은 보루네오섬에 북동쪽 사하의 해안의 길고 작은 조각들을 따라 살고 있다. 그들은 사마의 큰집단에서 많은 소집단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사마 시부투 방언 즉 바자우 언어를 사용한다.

사마(Sama) 혹은 사말(Samal)이라는 말은 사마의 다양한 집단-바자우를 말하는 사람들은 필리핀 중심으로부터 보루네오의 동쪽 기슭까지와 술라베시로부터 인도네시아 동쪽의 로피까지 거주한다-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쪽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개인적인 사마집단이다.

사마사람들은 본래 섬과 숲의 북동쪽성으로부터 남동

쪽의 민다나오로 분리되어 해안지역에 정착했다. 이것은 확장된 중국무역의 결과로 첫 밀레니엄 AD경에 이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이 남쪽과 서쪽으로 움직였고, 주요한 술루 알치펠라고, 카가얀 술루, 그리고 동쪽의 보루네오 해안을 따라 정착했다.

삶의 모습

사마사람들은 그들의 주요한 경제적 활동이 고기잡이인 해변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해상여행무역과 어떤 농사에 종사한다. 그 지역의 많은 도처에 코프라(코코넛 기름을 생산하는 말린 코코넛고기)는 주요한 상품작물이다. 그러나

코프라 보유가 작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코프라 판매로부터 전체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역은 또한 사마사회의 중심부에서 점유한다. 해변의 집단은 역사적으로 해상여행자들과 말린 고기 즉 트레팡(바다오이), 진주, 진주껍질, 그리고 다른 품목의 생산자들처럼 그들의 항해 기술을 가지 있게 여긴다.

신앙

사마사람들은 거의 모두 태양의 무슬림이다. 이만(이슬람의 지도자)과 다른 모스크 관리들과 같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박식한 이들을 파키(paki) 혹은 파킬(pakil)이라고

상에 되돌리기를 원하는 죽음의 영혼들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삶은 죽음에 대한 특별한 기도와 죽음의 청소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말레이시아 남쪽의 사마족은 대략 100%가 태양의 무슬림이다. 그들 중에 일하는 전도국이 없고,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원은 소수다. 단 시 성경의 일부만이 사마 시부투로 번역됐다. 선교사들과 기독교 매체 전부가 남쪽의 사마족에게 도달하기 위해, 그들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밀레니얼세대 1인당 평균 빚 3만불

미국 20-30대 성인은 평균 3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부채의 주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나타났다. 과소비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임금 상승율이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서비스회사 노스웨스턴뮤추얼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생)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제외한 개인 부채는 평균 2만790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 CNBC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는 여론조사업체 해리스폴이 미국 18세 이상 성인 2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재정전문가 샬 보노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골치 아픈 추세"라며 "밀레니얼세대 다수가 가진 문제는 그들이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수입이 줄어든 본인의 생활방식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를 그들의 과

소비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생활비는 계속 상승하지만, 임금상승률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임금은 40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임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은 40년 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부채의 주요인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Z세대(1997-2012년생)는 개인 부채 중 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가장 컸다. 1965-1980년생인 X세대와 1946-1964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와 28%로 가장 많았다.

트럼프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지불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미국)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미국 군대의 힘을 재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매우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이 방위비 부담을 져 왔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국이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의 동맹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 시간으로 24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또다시 언급함에 따라 미국의 강한 증액 요구를 예고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공식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7일 트윗을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증액을 압박했다. 전날 뉴욕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도 양국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2019년 말 이전에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을 비롯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국가 간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을 향해 방위비 추가 부담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지난 2011년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지만, 2018년까지 'GDP 2%

기준을 충족한 회원국은 전체 29개국 중 7개국에 불과한 상태.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나토를 '낡은 동맹'이라고 비판하고 취임 후에도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유럽 동맹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정은과 만남, 곧..." 3번 반복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곧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유엔본부에서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아 "곧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세 차례 반복해 말했다.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유희적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대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1·2차 회담들에도 불구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의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2-3주 내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날짜·장소 확정이 미뤄졌고,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월 최신회 외무성 제1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며 이달 하순 중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남은 좋은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5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이통해 비핵화 방법론을 포함한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항문한 세상 곳곳에서 '거름'의 삶 살라!

(2면에서 계속)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거름"에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소금을 조미료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소금이 거름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속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지만, 소금은 또한 수세기 동안 토양을 비옥하게 보존하는 농사용 비료로도 사용됐다. 19세기 한 농업 참고도서는 "발효된 퇴비를 땅에 한 번 밖에 뿌릴 수 없을 때도 소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퇴비더미에 소금을 뿌리면 퇴비가 얼마나 발효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값싸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소금은 퇴비가 썩지 않게 해 거름으로서 쓸모없게 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퇴비의 거름성분을 더욱 강화한다. 수세기에 걸쳐서 검증된 농업용 소금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소금을 식용으로 해석할 때보다 예수님의 소금 비유와 고대 세계에 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더 하면서 나는 고대 히브리인들만 소금을 농업용으

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과 고대 로마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금은 건조한 곳에서 토양이 수분을 보유하고 잡초를 말라죽이고 딱딱한 땅을 갈기 좋게 만들고, 산성이 강한 풀을 가축이 좋아하지는 풀로 바꾸는 데 이용됐다.

어떤 곳에서는 소금이 밀에 녹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갑자가 마름병에 걸리지 않게 해 준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소금은 이끼를 없애고 식물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려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 빗물이나 관계 물을 통해 토양에 스며든 소금은 화학적으로 중요한 무기질과 영양분을 그 땅에 내놓아 식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준다.

이것은 도시화된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지만,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필리핀 코코넛진흥청은 최근 "소금(염화나트륨): 코코넛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이고 저렴한 비료"라는 표제의 지침서를 배포했다. 이 지침서에는 소금이 작물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고,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적혀 있다. 1991년부터 1997년 사이에 코코넛 재배에 소금을 비료로 사용한 농부들은 그렇지 않은 농부들보다 125% 더 많은 수확량을 기록했다고 이 지침서는 말한다.

소금을 음식 맛을 내는 데나

사용하는 현대인이 아니라, 필리핀 코코넛 농부들(또는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하게 농업적인 관점에서 소금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될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디트리크 교수의 응용은 이와 같은 이 해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더 힘 있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 준다. "너희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소금, 성장을 위한 촉진제이다. 너희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면,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이롭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어찌 두루 퍼질 수 있겠는가?"

크리스천은 단지 조미료로, 부패방지용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황무한 세상 곳곳으로 보내져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이들이다. 거름이 돼 세상에 섞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생명의 땅으로 바꾸라고 부름 받은 이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급진적인 대항문화적 메시지에 헌신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생명과 성장을 가져다 줄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짠맛"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변화

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마 5:13).

농업용 소금이 황폐한 땅을 갈기 쉽게 만들고, 식물이 중요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하고, 거름이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어 준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소금인 우리를 비상하고 대항문화적인 무엇이 되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농업용 소금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하며 어떤 생명도 자라지 않는 곳으로 마땅히 가야한다. 밝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곳으로 가는 대신에,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기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하버드 역사학 학위를 갖고 있어. 그런데 왜 웨스트버지니아 시골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앞으로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대학운동 선수야. 그런데 왜 집에서 이혼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모두 전망이 밝은 경력에 갖고 있어. 그런데 왜 지역사회에서 장어를 갖고 있는 성인들과 함께 저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그 시간에 기업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러한 질문과 비판 앞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마음

껏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면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거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자신이 거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이나 직업적인 성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장으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가 흩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복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금은 메마른 땅일 뿐인 그곳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땅으로 바꿔야 한다.

"이 땅의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농업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밝은 빛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음전도, 정의, 사회참여,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질문들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놀랍도록 분명하게 이해된다. "이 땅의 소금"이라는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재능과 관심이 세상의 메마른 땅과 퇴비더미와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지 숙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분명하게 된다.

퇴비더미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이것은 황폐한 인생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작은 마을, 대도시, 부자 동네에도, 그 어디를 가든 생명이 없는

곳이 존재한다. 재난 당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다. 돈 문제, 중독, 억압, 불의, 잘못된 결정, 무시, 또는 복음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도 역시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

소금으로의 부르심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로의 부르심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썩어가는 퇴비더미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크리스천들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황폐와 부패가 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계획하신 세상 어느 곳으로 나아가고 계시든, 바로 그곳으로 크리스천들도 서로를 격려하고 훈련하며 나아가야 한다.

좋은 소식이 있다. 소금이 되기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오시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그곳에서 자비를 수단으로 삼고 사랑을 동기로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곳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술

예술은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개념을 설명하는 학문인 과학과 달리, 예술은 장작을 통해 아름다움을 설명한다. 예술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 회화, 조각, 건축, 음악, 문학, 그리고 무용 작품을 통해 동시대 사람들을 결합시킨다. 특정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조예가 깊은 개인들이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모두가, 예술 자체에 대한 관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중세의 예술도 마찬가지였다. 그 시대의 정신과 신학이 예술적 감각에 뛰어난 자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중세시대 말인 12세기 후반에 북부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딕예술(Gothic Art)'이다. '고딕'이란 단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시기와 동기를 살펴보면 중세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딕 예술

중세예술을 '고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일이다. 그 동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예술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차별화를 두기 위함이다. '고딕'의 어원은 중세 초기 로마제국의 영토로 이동하여 유럽을 정복한 게르만족 중 하나인 고트에서 나온 것이다. '야만인' 내지는 '야만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다시 말해 르네상스 사람들은 중세 고딕예술을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존하는 고딕예술 양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대의 교회건축은 시대를 초월하여 기독교 신앙인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웅장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Notre-Dame de Paris)이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현재 재건 중인 이 건물은 1163년에 시작되어 2세기에 걸친 건설 후 1345년에 완성되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특징 중 하나는 창문의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이다. 빛의 방향과 세기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 아름다운 채색 효과를 보임으로 신비와 경건미를 높이려했다. 또한 수직선이 강조된 첨탑도 고딕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다. 영적으로 쇠퇴하던 시기에 멀리 떠난 존재하는 것 같았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다. 그 열망이 신비주의적 태도와 초월 세계로 나아가려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고딕 건축은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였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교회 건물은 물론 수도원과 성, 마을 회관 심지어 주택도 이 양식을 사용하였다.

르네상스 예술-시작

이탈리아 르네상스인들이 무슨 이유에서 고딕예술을 야만적이라고 조롱하며 비하하였을까? 자신들의 회화, 조각, 그리고 건축에 담긴 예술성과 그 가치가 월등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르네상스시대의 정신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르네상스정신이란 인간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를 실현에 옮기는 능동적 자세였다. 그들에게 예술은 인간의 기술을 표출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이 기술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붓의 터치나 돌을 깨뜨리고 쪼

르네상스 예술-특징

지오토가 남긴 많은 작품 가운데 그의 기법과 그가 살았던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비탄(Lamentation)'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가 마리아가 품에 안겨 있고 그 주위에 여인들과 사도들, 그리고 천사들이 그려져 있다. 그리스도는 눈을 감은 주검의 모습으로 하늘로 향하고 있다. 여인들이 그의 양손과 발을 붙잡고 있다. 고딕시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 그림의 뒤쪽 배경도 한 몫을 한

우리는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사물에 대한 허구적 표현 대신 있는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르네상스 예술-명작

그림이나 조각, 그리고 건축 모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예술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부를 누렸던 여러 개인과 가족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 플로렌스에서 부와 정치적 세력을 누렸던 메디치 가문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지오토는 자신이 심취하였던 성 프란체스코를 주제로 28개의 프레스코

문 중세사회로부터 커다란 관점의 전환이 생겨난 것이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 몸을 보이며 왼손을 내밀고 있는 아담의 모습에서도 르네상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이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가 유명한 조각작품 '다윗(David)'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간적인 면을 접목시킨 것이다. 르네상스 화가와 조각가들은 정교한 인체를 묘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르네상스예술인 가운데 해부학에 가장 큰 관심을 지녔던 인물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이다. 그는 이탈리아 파도 대학의 의대교수와 함께 해부학을 연구하며 700점의 섬세한 인체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미켈란젤로 역시 해부학을 연구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보고 발견한 것을 시스티나 성당의 그린 천장벽화에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르네상스 예술-쇠퇴

르네상스예술은 중세 말기의 고딕 예술을 비하하며 등장하여 한 시대를 주름잡았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과 원근법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레 대상을 드러내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이것 자체가 르네상스시대의 정신이었다. 르네상스인은 무엇인가 주어진 것을 타파하고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덕으로 삼았다. 예술 활동이 사회적 지위와 맞물렸다. 스테인드글라스와 벽화와 같이 건축물 한 곳에 고정되었던 예술작품이 템페라화법을 통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템페라화법은 계란 노른자와 아교를 섞어 만든 안료를 나무판자에 칠하여 그림을 그리는 화법이다. 쉽게 휴대할 수 있고 개인 소장을 위해 매대도 가능할 뿐 아니라 예술 활동에 드는 비용도 절감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술가의 기교가 강조되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작품에 주입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1520년대에 매너리즘(Mannerism)이 등장했다. 르네상스의 독특한 형식을 계승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예술가의 인위성 강조는 르네상스예술이 지녔던 자연주의를 거부하는 형태였다. 각 예술가들의 자의식을 표현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 더욱 인간중심의 사고로 다가가는 발판이 되었다. '인간중심'의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고 견고하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45)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르네상스예술은 중세말 고딕예술 비하하며 등장 한 시대 풍미 1520년대 매너리즘 등장, 자연주의 거부 예술가 인위성 강조

는 능숙함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고딕예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르네상스 예술가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르네상스예술은 봉건적 신학에 바탕을 둔 중세사회로부터의 탈출을 중시하였다. 고딕예술의 특징을 수직구조라고 한다면, 르네상스는 수평구조를 중시하였다. 수직구조라 함은 중세 교회가 강조한 초월적 하나님과 그를 통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그 안에 담았다는 것이다. 이 특징은 고딕미술, 특히 성화 또는 모자이크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어떤 것일까?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권위에 찬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영원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평구조를 중시한 르네상스예술은 무엇을 강조하였을까? 르네상스예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오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1267-1337)의 그림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산실이었던 플로렌스 근교에서 태어난 그는 고딕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시기에 활동하였다.

다. 파란 하늘에는 천사들이 땅을 향해 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산과 언덕 그리고 커다란 나무 하나를 그려 넣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가 강조되었다. 르네상스 예술은 현재의 세계를 중시하던 고대로마와 그리스도의 특징을 재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에서 색다른 르네상스예술의 특징을 몇 가지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독특한 얼굴표정을 짓고 있다.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예술가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감정을 대신 묘사하려 한 것이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얼굴표정도 예사롭지 않다. 등장인물의 각도 역시 달라졌다. 고딕예술은 주로 얼굴을 정면으로 보였는데, 지오토는 좌측 또는 우측을 보이게 하거나 아예 얼굴을 가린 채 등만 보이도록 하였다. 서서히 사람의 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딕예술에는 그리스도 또는 마리아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키워 전체를 장악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를 통해

(Fresco)화법의 그림을 남겼다. 참고로, 프레스코 미술이란 젖은 회반죽에 그림물감으로 채색하여 벽화를 그리는 화법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Micha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Aedicula Sistina)에 그린 천장벽화가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1512년에 걸쳐 4년 동안 온갖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고 천장 밑에 받침대를 세워놓고 프레스코 화법을 사용하여 그린 그의 야심작이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9가지 내용이 묘사되었다. 그 중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끝이 맞닿는 것으로 유명한 '아담의 창조'이다. 이 작품에서 어떤 르네상스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직 중세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사상이란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켈란젤로 개인의 관심사가 유감없이 표현되었다. 먼저 하나님을 긴 수염을 지닌 할아버지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였다는 점이다. 르네상스인에게 하나님은 초월적 영역에 있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었다. 봉건적 신학에 바탕을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한인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새운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하늘소망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리더십 코멘터리 (97)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잊혀진 역사, 인기 높은 명절

종교개혁기념일과 할로윈데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벽에 로마가톨릭교회가 저지른 95개 조항의 기록문을 붙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경적 교리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마침내 10월 31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크리스천들은 오늘의 현대사회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개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잊혀진 날인 종교개혁기념일과 같은 날인 10월 31일은 미국의 인기 높은 명절이다. 할로윈데이 때 미국인들이 1인당 할로윈 복장과 장식, 사탕 소비에 평균 66달러를 사용

노크하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된다. 또 선택적인 수용방법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친한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의상을 마음껏 입어보고, 즐기도록 가을축제에서 의상 콘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서 대체적인 수용방법은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어린이 축제, Fall Faith Fest, Gospel Night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로윈을 대신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할로윈이 끼치는 영적 문제에 집중해서 이 절기와 문화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기독교적인 분위기로 이 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보수적 교회들이 선호하는 방법인 배타적인 수용방법은 Hallelujah

진정한 개혁은 회개와 각성, 성화의 삶... 하나님 은혜받기 리더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해서 할로윈 경제가 60-7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선 크리스마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명절이라고 알려져 있다. 호기심 많고 유행 따라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 날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서 유익하고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할로윈을 어떤 자세로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먼저 적극적인 수용방법이다. 할로윈의 이교적인 분위기는 배제하지만 할로윈의 문화를 이용해서 지역사회 복음화의 기회로 삼는 방법이다. 교회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Hallelujah Night이나 Fall Fest를 열고 맛있는 식사와 찬양 그리고 게임이나 특별공연 등을 준비해서 캔디와 초콜릿, 선물을 나누어주며 어린이들이 이 날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캔디를 받으러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로윈 전도용지나 소책자를 갖는 초콜릿과 캔디와 함께 넣어서 한 봉지씩 예쁘게 포장하고, 리본을 묶어서 한 바구니를 준비해두었다가 문을

Party로 할로윈을 보내면서 게임과 놀이 이외에 예배와 전도초청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의 책임은 무엇일까?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는 2019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개혁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회개와 각성이요 성화의 삶이다. 개혁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말씀으로 돌아가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남에게 개혁해야 한다고 외치기 전에 자신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을 살피며 개혁을 외쳐야 한다. 자신의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면서 개혁을 외쳐야 결실이 있다.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개혁자들은 삶이 뒷받침되어 개혁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 본받을 만한 리더, 희생하는 리더들이 외치는 개혁하자는 외침을 듣고 싶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리더가 누구냐고 묻

는다면 대답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리더는 많은데 진실된 리더를 찾기 어려운 시대이다. 정말 신실하고 참신하고 존경받을만한 리더가 '개혁하자, 개혁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외칠 때 모든 이들이 이에 공감하고 마침내 개혁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개혁을 이루려면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시작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삶이 바뀌었고 사랑이 넘쳐서 죄를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의 책임은 무엇일까? 고정관념을 갖고는 개혁 리더가 될 수 없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처럼, 개혁하는 교회 리더는 부분에 얽매어 전체를 보지 못하거나 결과에만 집착하여 과정을 도외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개혁하는 리더가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개혁은 요원하다. 개혁은 신앙 전체의 변화이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려면 많은 변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교회 개혁은 단순히 조직을 바꾸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체가 변화될 때 개혁이 실현된다.

개혁하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먼저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잃고 세상에 빠져있는 리더들이 많다. 개혁하는 리더가 되려면 교회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리더의 사명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사명완수를 위해 부단히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 기독교와 교회에 미래가 없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교회와 교단 그리고 연합기관이 탐욕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교회리더가 사는 유일한 길은 죽는 일이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관하실 수 있다. 교회는 철저하게 깨지지 않으면 살아나 개혁할 수 없다. 개혁을 부르짖는 교회 리더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리더들은 나 자신부터 깨어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겨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바로 서야 한다.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나를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죽어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와 섬김으로 영성을 회복해 다시금 희망을 주는 기독교와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sondongwon@gmail.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누구의 탓인가?

요즘 한국은 점점 더 점입가경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으나 원인이 나왔음에도 치료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요원하다. 병명이 나오고 치료제도 있으나 네 탓으로 돌리며 사대질을 하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까닭이다.

특별한 난제가 없어도 삶의 무게가 버거운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는 중에 일본의 무역규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확한 피해와 그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전에 경제는 출렁였고 겁장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한국인들의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기업들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정치논리로 발전하며 민족감정까지 더해진 한일갈등은 양보나 타협이 없는 강대강으로 맞붙으며 경제불안에도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

사사건건 보수와 진보라는 편을 가르며 이해타산을 앞세우던 정치는 조국을 범무부장관으로 지명하며 화약고를 터뜨렸다. 국익을 위해서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 됴데 불구하고 경제와 안보까지 팽개쳐서 조국을 때리고 감싸는 싸움으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진흙탕에서 뛰노는 사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뒤통으로 넘겨졌다.

식상하다 못해 뻔뻔하면서도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위정자들의 민낯을 보며 연필로 쓴 글씨라던 박박 지워버리고 싶은 심사이지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것은 이미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일을 번개 치 않으시기에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배가 지나는 바다에 거센 풍랑을 일으키셨다. 배가 파산할 위급한 지경에서도 원인제공자인 요나는 배 밑 침상에서 곤히 잠을 잤다.

위기에 다급한 것은 선원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애매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는 요나 때문에 그와 한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생사존망에 처한 것이다. 당금의 한국인들의 처지가 그러하다. 선출될 때만 공복이라는 탈을 쓴 뒤 안하무인으로 돌변한 위정자들과 정치꾼들의 당리당락과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파산할 듯 위태로운 한국호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다시스로 가던 배는 제비를 뽑음으로 지목된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파산을 면했으나 위기의 한국호에는 바다로 던져질 요나가 없다. 오히려 힘있는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을 제물로 삼아 요나인 자기들을 대신하고 있다. 요나는 거친 풍랑이 일어난 것이 자기의 탓이라고 순순히 인정하며 제물이 되었지만 한국의 요나들은 가책도 없고 반성도 없다. 그러니 한국호에 닥친 풍파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포악해져간다.

하나님을 정욕으로 욕망으로 자만으로 맞설 존재는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교만을 용서치 않으신다. 나그네의 웃을 벗기는 것은 거칠게 몰아치는 비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내려찍는 햇빛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낮아진 겸비에서 멈춘다. 진멸당할 만한 죄악으로 관용했던 니느웨는 거친 벼락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며 자축까지 금식함으로 유예되었다. 폭정을 일삼던 아합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경고를 받고 "아합이 이 모든 말들을 들을 때에 그의 웃을 짓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와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왕상21:27-29)는 겸비함으로 은혜를 입기도 한다.

한국의 위정자들과 정치꾼들은 어떤 경고에도 겸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회들이 나서야 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배에 탄 애매한 국민들을 위해 교회와 거친 벼락을 입고 회개의 재를 머리부터 뒤집어 써야한다. 국민의 5분지 1이 기독교인이라는 숫자만 내세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요나가 되어 회개해야만 한다. 그럴 때 한국의 위기는 교회의 회개와 겸비함으로 전화위복될 것이다.

hanmac@cmi153.or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절미: 오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Flushing), (917)373-3411 46-04 162 St., #2,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45분 주일3부 오후 3:20분 세백기도: 오전 6:00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세백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세백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6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요,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아영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p>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베아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내 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네”

거미줄을 보면 거미 한 마리에 모든 거미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한가닥 한가닥의 가느다란 거미줄들이 모두 다 한 마리 거미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미줄을 통해서 거미를 보지 않고 거미줄만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일 매일의 다양한 삶의 형태들 속에 살아 가면서 나름대로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모든 삶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종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11:36). 만물의 처음과 과정과 끝이 모두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복은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갈증과 배고픔은 예배와 집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가 아닐까? 매일 매일의 삶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고백을 드러 보았는가?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맥이 빠지는 이유, 이것저것 해야 할 신앙적 의무들은 다 하고 있는데 맥이 빠지는 이유, 충만한 것 같은데 실체는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광을 보기 소원하는 갈망이 희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영혼들의 온전한 만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볼 때 찾아온다. 너무나 일상생활의 문제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현재 하고 있는 사역 자체에만 모든 생각이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고 있지 않다면 결국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땅의 목표만을 쫓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만족도, 평안도, 기쁨도 그 어느 것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의 생각은 곧 불안과 불안정과 혼란스러움을 낳는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롬8:6). 그 영의 생각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갈망하는 상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갈망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한 생

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천국의 맛이요 천국의 능력 아니겠는가? 현재 당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 천국의 맛과 천국의 능력에 터치 받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새로운 태도와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것 즉 성실도 있고, 희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되어 그분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빠져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틀림없이 지쳐 있을 것이고 허전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자 하는 갈망을 품으라. 사람이 행하는 일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우리가 행하는 작은 것 하나에도 그것이 고귀하고 가치 매겨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 세워지면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

면 혼란스럽고 어지러져 있던 마음이 가지런히 질서 있게 정돈이 되면서 하늘의 평안과 만족과 위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 쪽에서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먼저 인식하고 그분께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사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리마인드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세 영적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불안정해지며 거룩한 자리를 이탈하여 세속화되어 버리기 쉽다. 한번뿐인 인생에게 마지막 순간에 남겨질 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쌓은 공적도, 명예도, 물질도 아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 소용없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직 한 가지만 남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번뿐인 인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발자취에 남기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소원해 보라.



희의를 인도하고 있는 노회장 최동진 목사

ACR99결의안 반대서명운동 동참 KAPC 남가주노회 정기노회

KAPC남가주노회(노회장 최동진 목사) 정기노회가 지난 17일 복음장로교회(담임 이광형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서 김상덕 목사는 '노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노회는 회무를 처리하는 기능과 앞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적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이라고 말씀을 전하며 노회와 목사의 책임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광형 목사(노회 서기)의 집례로 성찬식을 가진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는 각 시찰회와 지교회 관련 회무를 처리한 후 캘리포니아 ACR99결의안에 대해 지교회가 합심해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이와 같은 반성경적인 문제들에 대한 노회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 등을 결의했다. (기사제공: KAPC 남가주노회)



물댄동산 장애인선교회 찬양과 간증집회에서 물댄동산 장애인 회원들과 관객들이 흥겹게 찬양하고 있다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 찬양과 간증집회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회장 박수잔) 찬양과 간증집회가 '함께'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박수잔 회장은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쁨 때도 늘 주님이 함께 하셨다"며 "오

늘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기쁘고 따뜻함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댄동산 장구팀(지도 방인자 집사)의 장구연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원하트 미니스트리 찬양팀이 찬양했으며 물댄동산 청년부와 원하트미니스트리 찬양팀이 함께 즐겁게 찬양했다.

이어 물댄동산 수어찬양팀의 수어찬양, 물댄동산 난타팀의 난타공연이 있었다.

이날 갖사이미지가 찬조 출연해 집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예장국제총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주님 지상명령 수행에 전심 다하겠다” 예장국제총회 10명에 목사안수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총회(총회장 최홍주 목사) 목사 안수예배가 21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인도로 열린 예배는 구분철 목사(GMI훈련원장)가 기도했으며 최규남 목사(GMU총장)가 성경봉독하고 은혜한인교회

은혜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최홍주 목사가 이사야 42:1을 본문으로 설교한 후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김광신 목사(GMI총재)가 권면했으며 한기홍 목사(GMI부총재)와 신승훈 목사(국제총회 증경총회장)가 축사를, 김영환 목사가 답사했다. 김영환 목사는 "부족한 저희

들 택해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목사로 기름 부음 받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것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주님이 우릴 택해 주신 감사, 감격이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직분 받았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 이끄심 간구한다"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전심을 다하겠다. 귀한 소명 소중히 받들어 주님오시는 길 예비하는데 쓰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안동주 목사(국제총회 증경총회장)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이날 목사안수를 받은 목회자 명단이다.

△구제임스(GMU) △김승욱, 김영환, 김현철, 박상현(이상 은혜한인교회) △박이원(에브리데이교회) △박창희(생수의강선교회) △성용희(뉴송교회) △송두선(갈릴리은혜교회) △함관호(주님의영광교회). (박준호 기자)



LA10지구 시의회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집사(사진 우측 두번째)와 스태프들이 송정명 목사(사진 우측두번째)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저소득아파트 많이 만들겠다” 그레이스유 LA 10지구 시의원 출마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출마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는 16일 오전 강남회관에서 한인 기독교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인교회와 기독교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유 후보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 시의원에 출마하게 됐다"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10지구에 어르신들을 위한 저소득 아파트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LA카운티는 현재 한인타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많이 필요하지만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건축물들을 허문다고 한다. 렌트비가 500-900달러가 되는 아파트들인데 렌트비 100불만 올려도 렌트비를 낼 여력을 상실하게 돼 홈리스로 전락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려 LA 지역 노숙자 문제와 저렴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LA 한인타운의 70%가 포함된 10지구 시의원으로서 당선되면 LA 시의원 15명 가운데 세 번째 한인 시의원이 배출되며, 첫 아시아계 여성 시의원이 된다. 또한 LA 시의회에서 한인을 비롯해

아시아를 대변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후보는 "10지구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만 9천1백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1만여 명의 한인은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에서 한인사회의 지원과 결집으로 LA 시의회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진정한 커뮤니티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촉구했다.

2015년 첫 시의원에 도전해 고배를 마셨던 그레이스 유 후보는 당시 약 30%의 득표율인 4100표를 받아 아쉽게 패한 바 있다. 허브웨슨 시의장은 8800여 표로 3선에 성공했다.

유 후보는 "오는 3월 3일 예선을 통과해 결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 8000표 정도가 필요한데, 10지구에 거주하는 한

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적극적인 투표가 이뤄진다면 당선을 확실시할 수 있다"며 10지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성원을 요청했다.

LA 10지구에 포함된 우편번호는 90004, 90005, 90006, 90008, 90010, 90016, 90018, 90019, 90020, 90034, 90035, 90036이다.

미주 성서화운동본부 송정명 목사는 "미국 주류사회의 파תר너로 성장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 사회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된 1.5세 차세대 리더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며 "LA 교계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새생명비전교회를 출석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 후보는 3세 때 부모를 따라 이민온 후 초중고대학교를 LA에서 졸업한 토박이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거주 상원의원 보좌관, 비영리 법률봉사단체 아태변호사협회(APABA) 사무총장,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 등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해왔다.

LA 제10 지구는 허브 웨슨 시의장이 물러남에 따라 내년 3월 3일 예비선거, 11월 3일 결선을 통해 새 시의원을 선출한다.

후원 문의는 이메일 jessica@graceyoocd10.com 또는 전화 (213)247-1108 제시카 림, eunice@eunice-kang.com 유니스 강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성화장로교회 설립16주년 기념 임직식

KAPC 남가주노회에 소속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10월 6일(주일) 오후 4시 설립 16주년기념 감사예배와 함께 장로 및 권사 임직식과 원로장로 추대식을 갖는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 이호영 장로는

원로장로로 추대, 성열용 시무장로 취임, 윤조연, 오현숙, 정정희 권사 임직식을 갖는다.

한편 본 교회는 10월 한 달간 매주 수요 오전 10시30분 특별신앙강좌를 갖는다.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지부 '사랑의 오픈 아이캠프'에서 한 참가자가 시력검사를 받고있다

‘사랑의 오픈 아이캠프’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지부 주최

국제의료구호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지부(이사장 박윤숙)가 주최하고 오픈뱅크(행장 민길)가 후원한 '사랑의 오픈 아이캠프'가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픈뱅크 웨스턴지점(550 S Western Ave. LA)에서 열렸다. 이날 행

사는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진행됐다.

고정원 부이사장은 "1년에 두 차례 아이캠프를 열어왔는데 오픈뱅크에서는 3번째 개최하게 됐다"며 "한인타운에 아이캠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을 지속

적으로 돕고 있다. 특별히 아이 캠프를 통해 발견하게 된 자들은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부이사장은 "오픈아이캠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람을 느낀다"며 "예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역이라 믿게 된다. 눈을 뜨게 하지만 이 행사를 통해 영의 눈도 뜨게 하는 거 같고 하나님나라의 잔치가 연장된다"고 말했다.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인 커뮤니티 내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왔다. 백내장 증세가 있는 자들은 아이 캠프를 통해 한달내 무료로 수술을 제공받게 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주최하는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10월 18일(금)과 19일(토) 오후 7시 뉴욕 신광교회(담임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John Lee(Convergence Church), Rachel Baik(Arumdaun Church). 청소년센터(대표 황용송 목사)는 각 교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하기를 요망하고 있다.

▲문의: (718)279-1313 김준현 목사

뉴욕목사회 제 3차 임실행위

제 47회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 제 3차 임실행위위원회 및 친목회가 10월 3일(목) 오전 10시 뉴욕새협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992-5200

뉴욕참교회 장로임직 감사예배

뉴욕참교회(담임 문덕연 목사) 설립 28주년기념 장로임직 감사예배가 10월 13일(주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임직자는 김진목, 이승준, 채요한 씨.

▲문의: (718)757-1142



2019 워싱턴지역 복음화대성회가 이만호 목사(왼내)를 강사로 개최됐다.

“워싱턴을 새롭게” 주제

2019워싱턴지역 복음화대성회, 강사 이만호 목사

워싱턴지역교협(회장 한훈 목사)이 주최한 2019 워싱턴지역 복음화대성회가 “워싱턴을 새롭게”란 주제아래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에서 9월 12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강사는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로 열정적인 말씀과 뜨거운 기도 인도로 성령이 폭발하는 성회가 됐다.

임원들은 성령충만 했던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을 연상케 하며 총회무진 역사하시는 성령의 터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각종 영적 은사의 기도가 영혼과 마음, 육신도 치유회복을 받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다

워싱턴중앙교회 시니어엘리트 찬양대와 메트로폴리탄여성합창단, 워싱턴복음선교합창단, 워싱턴글로리아크로마프찬단, 그레이스사모합창단, 김중순 집

사 등 목회자와 성도, 기관장과 단체장들이 참석해 워싱턴지역 복음전도를 위해 기도했다. 이만호牧사는 첫날 “점점 강해지는 사람”(삼하3:1), 둘째 날 “복을 받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잠5:9-14), 셋째 날 “성령의 사람”(사61:1-11)이란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1)말씀과 기도의 능력 받아 직분 잘 감당하고(고후6장) (2)성령의 은사를 받아 전도와 참된 봉사자가 되며(사61장) (3)상한 마음과 질병치유로 교회에 말씀실천과 감사생활(잠5장) 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목사는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뉴욕회장, 뉴욕목사회 회장, 뉴욕교협 회장,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뉴욕회장을 역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개혁주의 선교지향적 신학교로”

뉴저지미주총신대선교대학원 개강부흥회

뉴저지미주총신대선교대학교 총장 강유남 목사는, 이사장 서상원 목사) 2019 가을학기 개강부흥회가 9월 16일 오후 5시 주예수사랑교회에서 열렸다.

교수진과 교직원들, 신입생과 대학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회장 정진구 목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희근 목사 인도로 진행됐다.

기도 이윤석 목사, 신입생들 교가 제창, 박성민 집사의 특주, 강유남 목사의 설교, 헌금, 양경욱 목사의 봉헌기도, 강유남 총장의 보직수어, 과목담당 교수들의 교과 안내, 강유남 총장의 광고, 서철원 박사의 축사, 정완기 목사의 축도 순으로 마쳤다.

총장 강유남 목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금번 학기에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에서 강의할 많은 신성능 교수, 조영길 교수, 박희근 교수, 이윤석 교수에게 보직을 수여했다.

총장 강유남 목사는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성경의 영감과 절대권위를 인정하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정치원리 및 교회사에 나타난 보수정통신학과 개혁주의신학을 사수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신앙적 진수들을 지키는 선교지향적인 신학교가 되도록 일하겠다. 특별히, 노인을 위한 장수목회, 소외된 교도소, 양로원, 병원목회와 해외 및 원주민선교, 해외 군부대 및 교도소 선교 등에 사역할 목회자 및 선교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온 힘을 쏟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 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학처장 김상용 목사는 “학사 과정에 5명, 석사 과정에 14명, 박사 과정에 9명 등 모두 28명이 금번 학기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동 신대원은 2019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을 기념해 제1회 신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강사는 서철원 박사다.

(가사제공: 뉴저지미주총신대선교대학원)

“나라를 위한 기도회”, 강사 김종훈 목사

뉴욕교협 등 교계단체 목회자 성도 합심기도

뉴욕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교협과 목사회, 목회자 기도회, 장로연합회, 여성목회자연합회 등 교계 연합으로 지난 23일 저녁 7시30분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는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실제적인 삶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정세와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와 민족 평화와 화평이 함께 하는 한반도와 우방나라, 인류사회가 되기를 간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은수 목사(교협총무) 인도



뉴욕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 김종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로 시작된 기도회는 개회찬양(안경순 목사)과 연합찬양(정순원 목사), 대표기도 이만호 목사, 성경봉독 안인중 안수집사, 특송 정지형 선생, 설교 김종훈 목사, 합심통성기도, 격려사 박태규 목사,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

됐다. 교협총무회장 김종훈 목사는 “거룩한 씨”(사6:1-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시아왕이 52년간 통치하고 죽은 후 절망에 빠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셨다”며 “이때 이 사야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씻고 죄사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질은 풍부하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남아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성령의 변화로 회복시켜주실 것”이라며 눈물의 기도를 촉구했다.

합심기도는 △미국을 위한 기도 박마이클 목사 △뉴욕교계를 위한 기도 전희수 목사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송윤섭 장로 △볼리비아 대통령후보 정치현 목사를 위한 기도 이재덕 목사 △한국을 위한 기도 박이שראל 목사 인도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목사회 10회기 시무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만민을 위한 가치를 들라” 표어로

뉴저지목사회 10회기 시무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뉴저지한인목사회 제 10회기 시무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이 지난 9월 18일 오전 10시 소망장로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우 목사는 “만민을 위한 가치를 들라”(사62:10)라는 10회기 표어로 소개하며 “30년 사역을 해오면서 목사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됐다”며 “우리 모두 작고 큰에 대한 자부심, 자기심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고 일어서자”고 말하고 “목사회를 통해 힘을 얻고 사명을 되찾고 소망을 얻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목회자들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1부 예배는 이의철 목사 인도로 기도 양혜진 목사, 성경봉독 백형두 목사, 특송 뉴저지남성목사회 회장, 설교 홍인석 목사(뉴저지교협회장), 봉헌송 크로마프찬양단(이진아 목사 지도), 봉헌기도 김보라 목사, 축도 김종훈 목사(직전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홍인석 목사는 “생수의 기적”(요4:7-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만 목마를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목마르다”며 “인생이 목마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다. 뉴저지목사회 회원들이 목회나 삶 가운데 목마름 없이 예수님 말씀과 생수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기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취임식은 김동권 목사 사회로 이인사 김중운 목사, 임무스톤 인계, 취임사, 공로패 증정(김중운 목사에게), 신임원 인사, 권면 양종길 목사 이광희 목사, 축사 박태규 목사 윤석재 장로, 축가 뉴저지사모합창단, 5개주 체육대회 광고 김태수 목사, 광고 김동권 목사, 폐회기도 김정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020년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호스트를 맡은 뉴저지주는 김태수 목사를 분과위원장 겸 세워 범교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준비한다. 체육축체, 친교선교, 목회영성이라는 3가지 목표를 놓고 준비하고 있다.

10회기 임실행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유병우 △부회장 이의철 △총무 김동권 △서기 양혜진 △회계 박인갑 △목회분과 백형두 △교육분과 이화진 △체육분과 이준규 △음악분과 이정환 △친교분과 김보라 △5개주체육분과 김태수 △감사 윤명호 박근재(이상 목사).

(유원정 기자)



뉴저지미주총신대선교대학원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작은교회연구소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36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박춘수 목사, 부회장 김레너드 목사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36회 정기총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36회 정기총회가 9월 17일 오전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담임 박춘수)에서 열렸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에 박춘수 목사, 부회장에 김레너드 목사가 선출됐다. 임원은 유입하고, 각 분과위원회 담당자는 다음 모임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신임 회장 박춘수 목사는 장로교 신학을 한 후 목사안수를 받고 2011년 뉴욕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돼 뉴욕으로 왔다. 김레너드 목사는 고려인으로 브루클린에 있는 고려인교회인 열방교회 담임목사이며 20년 전 뉴욕지방회에 가입했다. 또 박진하 목사는 한인총회 실행위원으로 위촉됐다

1부 예배는 박춘수 목사(부회장) 인도로, 기도 한필상 목사(회계), 설교 박진하 목사(친즈침례교회), 광고 신은철 목사(총무), 축도 신석환 목사(부활의새빛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눅18:35-43)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뉴욕의 목회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따르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다”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의 모습을 조명하며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2부 회의는 회장 김영환 목사 사회로 진행돼 △대의원은 개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와 대

표 1인 등 2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신안건으로 △회원자격 관련 목회를 중단한 목사도 지방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은 임원회를 거쳐 다음 모임에서 다루기로 결의했다.

지난 회기 주요사업보고(총무 신은철 목사)는 △사모 위로의 밤(11월)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 송년 및 성탄 축하모임(12월)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 야외예배(5월) △목회자 가족수양회(8월) 등이

다. 선교위원회(신은철 목사)는 개척교회 지원 및 선교지원으로 2,529달러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교육분과(박현준 목사)는 8월 12-14일 플리머스에서 열린 목회자 수양회(강사 최창섭 목사)에 33명이 참가했다고 보고했다.

청소년분과위원회(노기송 목사)는 챌린지 청소년 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송민규 목사(뉴송교회 EM목사)를 강사로 열렸으며 18개 교회 105명이 참가했다고 보고했다.

재정보고(한필상 목사)는 수입 40,353달러, 지출 40,070달러로 보고했다. 이재홍 목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재정이 성실하게 집행되고 관리됐다고 보고했다.

(가사제공: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좋은 목사가 좋은가? 큰교회 목사가 좋은가?”

한인디아스포라 작은교회연구소, 강사 유재명 목사

한인디아스포라 작은교회연구소가 지난 24일과 25일 오전 10시부터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유재명 목사(안산 빛나교회)는 첫날 목회간증을 곁들여 교인수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목회 팀을 제시하고 자성의 기회를 갖는 도전의 시간을 마련했다.

유 목사는 “좋은 목사가 좋은가? 큰 교회 목사가 좋은가? 물으며 교인을 거울에 비추지 말고 목사 자신을 비춰보라.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 되는 게 힘들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게 더 힘들다. 예배당을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라. 교인을 성장시키면서 꼭 필요한 것은 목사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목회를 배워서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라. 나를 향해 기대하고 계산 하나 남, 성도들도 목사를 기대한다” 등의 말을 전했다.

둘째 날에는 성경적으로 보는 교회 본질에 대해 강의했다.

(유원정 기자)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선교적 삶 주제 세미나에서 김도현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선교적 삶’ 주제, 한국 IBA 주관 베델한인교회 제 2차 비즈니스 미션세미나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제 2차 비즈니스 미션 세미나가 ‘선교적 삶’ 주제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했다. 금요일 저녁 집회에서 김도현 목사(시애틀은누리교회 담임)가 ‘십자가의 말씀’(고전 1:18-30)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21세기 들어 지역적 구분이 많이 흔들리게 됐으며 제3세계 교회들의 눈부신 성장으로 선교지역과 비선교 지역 나누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 미션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 다섯째 미션은 교회자체가 보내는 보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다. 교회자체 아닌 하나님주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것이다, 둘째째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보내심에 세워졌기에 교회 본질은 선교다. 헌신된 자가 다른데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닌 교회 자체가 세상에 보내 줌과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세상과 관계를 설정해 준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에 살도록 보내심 받았다”며 “교회가 교회밖 문화와 단절되는 것이 아닌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세상문화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복음전하기 위해 대면하게 되는 도전이다. 세상 문화 속에 가서 복음전해야 하는 자들은 평신도 성도들이다. 컨퍼런스에서 논의해보고 싶은

것은 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이다. BAM(Business As Mission)은 건강한 교회공동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BAM은 다른 자의 이익을 구하는 비즈니스가 돼야 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이고 삶을 해석하는 틀이다. 십자가 원리가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수 없다. 오직 십자가 원리대로 선교적 삶과 BAM을 추구해야 한다. 십자가원리는 세상의 성공을 거부한다. 십자가 지고 원리에 맞게 사느냐가 본질이다. 십자가 원리가 나의 삶의 원리가 돼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 첫째 날 강의는 한국 IBA(International BAM Alliance) 주관으로 목회자 BAM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IBA 사무총장 송동호 목사가 “BAM으로 목회하라” 제목으로 강의했다. 둘째 날은 김도현 목사, IBA 송동호 목사, CBAM 대표 서명구 교수(메릴랜드대학교), 유재철 선교사(중국 보이마루), 황진술 대표(The Bridge International), 제프리리 선교사(SfK Ministries)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으며 셋째 날 예배 시간은 김도현 목사가 ‘어린양께 새노래를’(계5:1-14), 송동호 목사가 ‘일상에서 왕들로 살라’(계5:9-10)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치매연구 협력...브레인기증 캠페인 전개 소망소사이어티, UCI MIND와 MOU 가져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UC Irvine Institute for Memory Impairments and Neurological Disorders(이하 UCI MIND)와 UCI MIND 연구실에서 20일 오후 4시 MOU를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소의 소장인 조슈아 그릴 박사와 연구진, 소망소사이어티의 유분자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고문, 실무진 등 10여명이 참석해 향후 치매연구 사업에 있어 두 단체 간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작업에 소망소사이어티가 함께 참여해 아시아 커뮤니티의 자료구축 및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한인사회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같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연구 결과가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CI MIND와 MOU를 맺은 소망소사이어티는 한인 치매 환자 연구를 위해 브레인기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실시해온 시신기증프로그램처럼 이번 MOU를 기점으로 브레인기증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시신기증 프로그램의 지속적 홍보로 시신기증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로 인한 사망자 증가현상은 새로운 사회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시신기증을 생가하는 분들이 브레인기증으로 전환한다면 치매연구와 시신연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어 후세대들의 질병예방 및 치료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브레인기증 및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562)977-4580 (박준호 기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산제사 삶 살기 박공서 목사 ‘성경적 세계관 바로알기’ 세미나

박공서 목사(새부천교회 담임)의 ‘성경적 세계관 바로알기’ 세미나가 19일과 20일 양일간 나성삼일교회(담임 한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첫날 강의에서 박공서 목사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단순한 학문이나 이론이 아니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며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며 혹은 나야 결정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 보는 가치이고 예수님

의 마음”이라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의 단순한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갖고자 함이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산제사 삶을 살기 위해서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영성이 가능해 생명을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적 세계관, 타락적 세계관, 구속적 세계관이라는 연결고리로 돼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성경적 세계관 바로알기 세미나에서 박공서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가나안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순서맡은 이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앞줄 가운데가 임동운 가나안교회 담임목사이다

“지역사회 복음화하며 사명 잘 감당” 가나안교회 임동운 담임목사 취임예배

가나안교회 제4대 담임 임동운 목사 취임예배가 22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임동운 목사는 “가나안교회로 담임목회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가나안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역사하게 되며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희 목사(임시당회장) 인도로 시작된 취임예배는 우상림 목사(노회서기)가 기도했으며 성가대 찬양 후 노진걸 목사(풀러턴장로교회 담임, KPCA 증경총회장)가 ‘하나님 나라를 만듭시다’(약3:17-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진걸 목사는 “임동운 목사가 가나안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건 시집보낸 것 같은 느낌”이라며 “목회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배운 분이 임동운 목사”라 말했다.

노 목사는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는데 마귀가 주는 지혜는 정욕적 지혜이며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 속에는 시기, 다툼 등이 있다. 하나님주신 지혜 따라 성결, 화평, 의의 열매 맺기를 힘쓰면 축복 주시고 하나님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

백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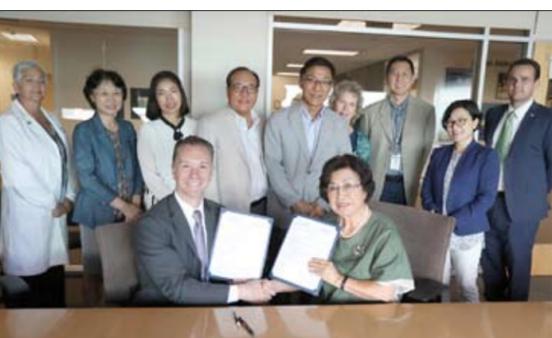
설교에 이어 정경화 목사(KPCA 서남노회장) 인도로 담임목사 소개, 서약, 기도, 선포, 취임기념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축하시간은 카리스남성중창단이 축하 찬양했으며 최명환 목사(증경노회장)가 권면 및 축사, 임동운 목사가 인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대순 목사(KPCA 증경총회장, 가나안교회 초대담임) 축도로 마쳤다. 임동운 목사는 1969년 서울 출생으로 81년 도미, 가나안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UCI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후 풀러턴교회에서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ANC는 누리교회, LA홈처치, LA 등대교회, 샌디에고 갈보리교회, 뉴욕 한빛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으며 메릴랜드연립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이후 풀러턴장로교회 한어장년부사업 담당사역을 8년간 했으며 지난 61회 서남노회 정기대회에서 가나안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승인 됐다. 임혜진 사모와 사이에 아들 예찬, 예진 여윈 두 딸이 있다.

(박준호 기자)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과 조슈아 그릴 UCI MIND 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악수하고 있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KACC 상담 세미나

Buena Park, OC에 위치한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총장 임성진 박사)는 “내 안의 나 만나기”라는 주제로 10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총 10주(10/7, 11/4, 12/9, 오후 6시-8시)에 걸쳐 상담 세미나를 진행한다. “내 안의 나 만나기: IFS (내면가족치료)를 통한 내적치유와 성장”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세미나로 참가비는 100달러. 강사는 현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과 송경화 교수이며 선착순으로 25명만 사전 등록을 받는다.

▲문의: www.wmu.edu, (213)388-1000

한인가정상담소 연례 기금모금 행사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제36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오는 10월 4일(금) 오후 6시 월셔이벨극장(743 S. Lucerne Blvd., LA, CA)에서 개최한다. 올해 기금모금 행사명은 ‘KFAM 로얄(KFAM Royale)’로, 기존의 갈라 만찬이 아닌 캐주얼한 분위기의 칵테일파티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연례 기금모금 행사는 타이틀 스폰서로 시너스 사이나이를 비롯해 제이미슨 서비스, AMKO 등이 후원한다.

▲문의: (213)235-4848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및 한미연합 목회자 사모세미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설동욱 목사(서울 예성교회 담임)를 강사로 추계부흥성회를 10월 3일(목)부터 6일(주일)까지 ‘하나님의 본심(에3:33)’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또한 한국 목회자 사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과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공동 주최하는 ‘한미연합 목회자사모 세미나’가 10월 7일(월), 8일(화)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침,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1인당 등록비는 20달러이며 선착순 100명만 등록을 받는다.

▲문의: (714)446-1000, 336-4378, dskim143@gmail.com

오렌지한인교회 제8대 담임 피세원 목사 확정

오렌지한인교회(OKC)는 제 8대 담임목사에 피세원 목사를 확정했다. OKC는 15일 열린 임시공동의회에서 상정된 제 8대 담임목사 청빙안건에서 피세원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피세원 목사는 10월 6일(주일) 부임한다. 피 목사는 종신대학교와 아주사퍼시픽신학교를 졸업했다.

▲문의: (714)871-8320

시온복음선교교회 설립기념 찬양감사예배

시온복음선교교회(대표 글로리아김 목사)는 설립 32주년 기념 찬양감사예배를 10월 5일(토) 오전 7시, 오후 3시에 개최한다.

▲문의: (323)734-7177, (213)703-5412

찬양대 지휘자 모집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정규대학원 합창지휘 또는 성악 전공자로 찬양대나 합창단 3년 이상 지휘 경험자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신앙간증서, 사진(각1매), 추천서 2매. 제출 마감은 10월 13일(주일).

▲문의: 인사위원회(office@youngnak.com)

남가주사랑의교회 2019 영적각성집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19 영적각성집회를 ‘오직 믿음으로(요14:12)’라는 주제로 갖는다. 강사는 이종식 목사(베이스아드장로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0월 4일(금) 저녁 7시30분, 5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6일(주일) 1-4부 예배다.

▲문의: (714)772-7777



오버플로잉교회 창립8주년 기념예배에서 전교인이 8주년을 감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운데 굳건히...” 오버플로잉교회 설립 8주년 기념예배

오버플로잉교회(담임 김충만 목사) 설립 8주년 기념예배가 22일 오후 1시에 열렸다. 김충만 목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며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오늘 드러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8년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기억하는 예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 교회 찬양팀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권토니 형제가 기도했으며 오버플로잉교회 8주년 기념영상 소개, 김충만 목사가 “여호와 우리 주여”(시 8: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기도와 찬양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충만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예장합동 김종준 신임총회장

총신대·동성애·낙태 등 370여개 현의안논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이 23일 서울 강남구 총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김종준(꽃동산교회) 목사를 신임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개회예배 직후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총대들은 103회기 부총회장을 지낸 김 목사를 기립박수로 추대했다.

김 신임총회장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예장합동 총회,

다음세대, 총신대, 목회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목사부총회장에 단독 임후보한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은 것은 제93회 총회에서 고 서정배(울산 대광교회 원로) 목사가 단독 임후보한 후 11년만이 다.

서기와 회계도 이전 회기 부

임원을 지낸 정장수 산돌교회 목사와 이영구 서현교회 장로가 투표 없이 정임원으로 추대됐다.

4박 5일간 370여개의 현의안이 다뤄질 예정인 104회 총회에는 전국 155개 노회에서 총대 1482명(목사 755명, 장로 727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총신대 정상화 및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목사 장로 임기연장,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입장 확인 및 제재규정 마련,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이단성 확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이단옹호단체 규정 1년간 연구”

예장고신 제69회 총회 주요 안건 결의 결과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고신다운’ 정체성을 회복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신임 총회장 신수인(경남 양산교회) 목사는 17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69회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34개 노회 소속 총대 520명 중 517명이 참석했다. 신 총회장은 501표 중 472표를 얻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박영호(경남 새순교회)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윤진보(대구 명덕교회) 장로가 당선됐다.

고신은 이번총회에서 “한국 기독교연합회(한기총)의 이단 옹호 여부를 총회 소속 이단대책위원회가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했다. 앞서 최시 경기북부 노회장은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후로 이단 세력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변승우(사랑하는교회) 씨를 이단에서 해제하는 등 예장 고신 교단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한기총에 대한 이단 옹호 단체 규정 및 전 광훈 대표회장 이단 옹호자 규정 건’을 총회 안건으로 청원한

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목사의 이단성 연구 청원 건’은 고려신학대학원(신대원) 교수회가, ‘미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및 이인규 씨 관련 이단성 조사 건’은 이단대책위원회가 각각 맡아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68회 총회에서 결의된 ‘복음 학교 김용의 선교사와 새물결플러스 김요한 목사의 이단성 연구 조사’ 건에 대해서도 해당 연구를 맡은 신대원 교수회가 “두 목사 각각 예장 합신·합동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고신 총회는 이날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에 대한 교단 교회의 후원을 중단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전임 총회장인 김성복 목사는 “뉴스앤조이가 교회 해체 운동에 앞장서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반기독교 및 반성경적 성향을 보인다”며 “뉴스앤조이가 건전한 기독교 언론인지 연구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에 대해 총회 측은 “이단대책위에 조사를 맡기 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스앤조이에 후원하고 있는 고신 측

교회는 이를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고신 총회에서는 한국 사회 및 교계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

먼저 한국 내 교인의 급격한 감소로 생계 위협을 받는 목회자에 대한 이중적 허락 건은 총회 신학위원회와 신대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뒤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또 신대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여학생에게는 총회가 인준하는 전도사 자격증을 소급 적용해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낙태죄 문제와 경남학생인권 조례 등 동성애 옹호법 문제, 전국 학교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단군상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총회 차원의 ‘반기독교적 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임원회가 조직해 운영기로 결의했다. 2015년 총회가 사용을 결의한 ‘새번역 사도신경’이 고신 헌법의 내용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며 ‘사도신경의 재번역(수정)과 해설서 발행’을 청원한 건에 대해서는 신대원 교수회에 1년간 연구를 맡기 돼 번역 부분은 건들지 않고, 해설집을 만드는 선에서 결의했다.

고신 총회는 이날 총회 내 각 기관 및 부서의 감사 보고를 받은 뒤 폐회를 선언하며 17일부터 이어진 총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교회가 남북한 사실상 종전상황구축 힘쓰자”

협력단,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성명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공동대표 나해집 이영훈 지형은 한영수 목사)이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남북의 사실상 종전 상황을 구축하는 데 힘쓰자”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윤은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평통연대) 사무총장은 “우리는 온전

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남북과 북·미 관계가 일관성 있게 진전되길 기대한다”면서 “북·미는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를 완수하라”고 밝혔다.

이어 “민족 화해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 교류 협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물꼬를 트라”면서 “기업과 NGO는 물론 다양한 영

역별 주체들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실무교육과 정보제공도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단은 남북의 적대적 대결 관계가 이미 종식됐음을 믿고 교류 협력에 나서겠다”면서 “동아시아 및 세계 교회와 연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협력단은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문건 선언 이후 기독교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발족했다.

다”면서 “청소년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이런 행사는 실내에서 하라”고 주장했다.



이승희 목사 장충식 장로

목회자 이승희 목사, 교육자 장충식 장로

제16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수상자 확정

“홀리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수상자가 목회자, 교육자 2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홀리스피리츠맨메달리온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16회 홀리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이승희 목사(반야월교회 담임), 교육자부문 장충식 장로(단국대학교 이사장).

예장통합 김태영 신임총회장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교단 쇄신 방안 협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제104회기 총회가 23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시작했다. 신임 총회장 김태영(부산 백양로교회) 목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제목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말씀과 혁신’을 강조했다.

김 총회장은 “유대 포도를 이 끌고 예루살렘에 부임한 느헤

미야의 일성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느2:17)를 기억하자”고 했다. 그는 “교회를 교회답게, 총회를 총회답게 시작됐다. 신임 총회장 김태영(부산 백양로교회) 목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제목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말씀과 혁신’을 강조했다.

104회기 목사 부총회장에 당선된 신정호(전주동신교회) 목

사는 “총회가 치유 화해 회복에 앞장서고,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상 첫 여성 장로회장이 된 김순미(서울 영락교회) 장로는 “총회장을 조력해 겸손히 섬기는 밑받침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기는 조재호(서울 고척교회) 목사, 부서기는 윤석호(인천 동준교회) 목사, 회계는 김대권(서울 염천교회) 장로가 선임됐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과 관련,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예장개혁 새 총회장에 조성환 목사

代이총회장 “소통하며 섬기는 총회 되는데 힘쓰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총회(개혁)는 17-20일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있는 중앙중앙교회(조성환 목사)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조성환 목사를 선출했다.

개혁 총회는 53개 노회, 1000여 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이번 총회의 주제는 ‘소통하고 섬기는 총회’(빌2:2)였다.

신임 총회장 조성환 목사는 취임사에서 “개혁총회가 한국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큰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올바른 신학의 회복”이라며 “개혁총회가 성경에 입각한 개혁신학, 공교회적 전통에 선 개혁신학, 교회현장을 살리는 개혁신학을 세우는데 적극 협력하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조 총회장은 “보다 나은 총회가 되도록 소통하며 섬기는 총회가 되는데 힘쓰겠다”면서 “개혁총회가 공신력 있는 총회로서 외부의 유관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예장백석대신 유만석 신임총회장

통합정신 살려 한국교회 위한 대안 마련 앞장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제42회 백석대신 총회가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 라비도리조트에서 열렸다. 예장 백석대신 총회는 예장 대신과 백석의 통합정신을 계승해 한국교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총회를 목표로 새롭게 출범했다. 장로교 정치 원리에 충실한 총회를 이뤄가도록 장로교 정치에 맞는 노회 구조를 갖춰가기로 했다.

예장 백석대신 총회는 한국

교회 교단 정치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회 중심의 행정, 대의정치에 기초한 총회 운영, 선교중심의 총회 역량 집중,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총회를 만들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성장을 이뤄가기로 다짐했다.

총회는 당일 등록된 총회원과 노회별로 가입을 전달한 총회원수(참석자 위임자)를 합하면 1000교회가 된다. 11월 4-5

또한 다양한 총회들과의 협력 관계를 개척하고, 가능하다면 해외 한인 총회들과의 교류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직전 총회장 박만수 목사는 “아버지 조경대 목사의 대를 이어 아들인 조성환 목사가 총회장이 된 것은 영광스럽고 감사하며 매우 드문 일”이라며 개혁총회가 조 목사 체제에서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다.

다음은 새 임원 명단과 새 총회장 취임사 전문이다.

△총회장 조성환 목사 △목사부총회장 최진기 목사 △장로부총회장 배경자 장로 △서기 박영남 목사 △부서기 김영식 목사 △회록서기 오인권 목사 △사회복지서기 노성수 목사 △회계 한강욱 장로

일 속개되는 총회까지 상당수의 목회자와 교회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원의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된 총회장 유만석 목사는 그동안의 우려를 극복하고 새로운 총회의 기초를 다지는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유 총회장 외에 목사 부총회장 양일호 목사, 장로 부총회장 정복섭 장로, 서기 류기성 목사, 부서기 문윤기 목사, 회의록서기 김희석 목사, 회의록부서기 강우식 목사, 회계 정규성 장로, 부회계 이진섭 장로, 사무총장 김자중 목사가 각각 선임됐다. 총회는 10개의 비전 선언문도 선포했다.

‘비즈니스선교’로 세계 복음화 활로 찾는다

기감 선교정책 세미나 열고 대안으로 꼽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비즈니스선교를 시대적 도전 과제로 판단하고 정책 개발과 사역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선교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적 영향력을 확산하는 선교 방법을 말한다.

기감 선교국은 19일 인천 예일교회에서 세계선교정책세미나를 열고 복음 전파와 제자훈련 중심의 전통적 선교방법의 대안으로 비즈니스선교를 주목했다.

주제 강의는 조셉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가 했다. 경영학 박사인 조 대표는 국제인터서브선교회 비즈니스선교 책임자와 국제비즈니스연대(IBA) 공동대표를 맡은 이 분야 전문가다. 조 대표는 “선교지마다 전통적 선교에서 NGO 사역과 비즈니스선교로의 사역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면서 “비자범이

강화되면서 비즈니스선교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선교사는 실제 고객이 요구하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유통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만나야 사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선교사가) 사업가로 전락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더 낮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현지인들을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선교를 하면서 복음 전파에 방점을 찍으라는 주문이었다.

조 대표는 “사업을 하다 경쟁업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는데 이걸 선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면서 “비즈니스선교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권했

다. 그는 “비즈니스선교는 선교와 비즈니스 두 분야에 모두 자질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면서 “비자 연장만을 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면 후원교회와 선교지 주민들, 선교사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했다.

오일영 기감 선교국 총무는 “기감 선교사 중 72%가 현지 교회 개척과 신학교육을 하고 있지만, 종교·선교사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사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아마저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선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감은 전 세계 75개국에 1272명의 선교사(2017년 6월 기준)를 파송했다.

국내 선교국은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비즈니스선교의 개념을 정립했다. 당시 선교사들은 비즈니스선교를 ‘복음에 전 해지지 않은 곳에서 선교사에 의해 재정적 독립이 가능한 비즈니스를 통해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역’으로 규정했다.

년 단국대학 이사장을 맡아 단국대학교를 크게 발전시켰다. 대학 배드민턴연맹, 육상경기연맹, 스키연맹, 축구연맹, 태권도 연맹, 테니스연맹, 대학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학 스포츠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대학체육계에 기여했다.

제16회 홀리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은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3시 대학로 한국기독교성령센터 활화자 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메달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중앙협의회)

퀴어행사 맞서 ‘동성애 STOP 레알러브시민행진’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400여명 참석해 폐해 알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가 22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열린 퀴어행사에 맞서 ‘제1회 동성애 STOP 레알러브시민행진’을 개최했다. 400여명의 참석자들은 제17호 태풍 타파 영향으로 몰아친 강한 비바람에도 동성애 폐해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강정희 부산공교육살리기학 부모연합 대표는 “지난해 헌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 부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다”면서 “그 학생은 1학년 때 동성애자 포털 사이트에서 동성애자를 만나 한 번의 항문성교를 했는데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학생이 만약 동성애의 보건적 해악을 사전에 알았다면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위험한 성행위를 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게 사랑이다.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혐오

표현, 인권침해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위선자”라고 비판했다.

탈동성애를 한 A씨도 마이크를 잡고 “과거 동성애 문제로 약물에 중독되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면서 “환경 탓만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잘못된 주장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퀴어행사를 하는 저 청년들이 동성애를 끊으려면 성경 말씀밖에 없다”면서 “교회가 저들을 사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주최 측은 퀴어행사 측과 별다른 마찰 없이 행사를 마쳤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퀴어행사 참석 인원이 80여명밖에 안 되는데 이들을 보호한다며 2100여명의 경찰을 동원했

선교의 창 (13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중국인의 생활 문화

한중관계는 1992년 8월24일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를 기점으로 대중관계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후 중국에서 한인 기업들이 하나, 둘씩 밀려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선교사역은 어떠한가? 중국선교 역시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근자에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이제는 남아 있는 사람들도 숨죽이며 활동을 절제하고 있다. 한마디로 물 좋은 때는 지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로서 잠재력이 무한하며 세계인구의 1/5에 해당되는 중국인을 도외시키고 Business와 세계선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어떤 어떤 문화적 지니고 있을까?

1. 만만디(慢慢地)문화

한국인의 습성을 대표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한다면 중국인은 '천천히'라는 뜻의 '만만디(慢慢地)'이다. 그 느낌은 황소걸음처럼 큰일을 이루어가는 긍정적인 의미와 때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느긋함이나 굼뜨미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평가받기도 한다. '만만디'라는 생활 문화는 중국이라는 환경과 살아온 역사 속에서 생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중국인들은 느림은 평원에서 단순하게 살았다. 구태여 경쟁하며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대자연의 거대한 앞에서 인간의 열심은 별 효용이 없었다는 것을 선형적으로 깨닫지 않았을까 싶다. 사회주의 시절에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느림'이 존재했다. 이래도저래도 똑같이 나누어 먹었으니까?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문화가 휘몰아치면서 느림의 가

치와 의미도 변하고 있다. 아무튼 이 '만만디'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는 행위의 속도가 아니라 중국인 특유의 정서적인 여유로움과 신중함이다. 이것은 결코 게으르거나 욕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책량이며 일종의 기회를 기다리는 욕심 같은 것이다. 그 속에는 실리를 담보하기 위한 '신중함'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문화

중국인은 여유만만하고 스케일이 큰 특징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여간해서는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다. 중국인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저들도 모르는 3가지 "중국 인구, 중국어 문자 수, 중국인의 마음"이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중국인에 대한 이해도 없는 선교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기 쉽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 동안 전승되어온 생활 철학과 문화가 있다.

중국인에 대한 이해도 없는 선교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기 쉽다.

저들은 사람을 보아가며 평가하고 천천히 마음 문을 연다. 서구문화가 직선이라면 중국문화는 곡선이다. Yes, No가 분명한 서구인들은 중국인들의 마음속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저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지난 25년 동안 한인 단기선교 팀들이 4영리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보고인즉, '하루 동안 30명을 만났고 그 중 25명이 결신했다'고 기뻐했다. 이는 중국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외국인이 짐을 튀기

며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찌 "No"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저들은 "하오(好:좋다)"라고 답했다. 그 뜻은 꼭 "Yes"를 말함이 아니다. 상대방 체면을 생각해서 애들러 표현한 것이다. 앞뒤 좌우문맥과 얼굴빛 속에서 상황판단을 해야 했다.

3. 체면과 관계(關係)를 중시하는 문화

중국에서 흔히 우수개 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쉬운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다. 되는 일도 안 되는 길을 찾아가면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길을 찾아가면 된다. 중국 사람들은 미엔쯔(面子:체면)와 관시(關係:관계)를 중시한다.

특히 판시는 우리의 '백'(background)과 비슷한 뜻으로서 하루아침에 쌓아질 수 없다. 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지만 선패를

좌우하는 것은 관계라고 본다. 그것을 까오 판시(關係) 또는 라 판시(拉關係)라고 하는데 이는 "관계를 엮는다"고 보면 무방하다. 이렇게 하여 판시왕(關係網: 관계망)을 마치 거미줄처럼 형성해 두고 있다. 이렇게 관계를 중시하다보니 사람을 평가할 때 상대방의 능력보다는 판시가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즉, "그가 누구인가 보다 누구와 연관된 사람인가"가 더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4. 재화에 집착력이 강한 문화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에 의해서 베이징올림픽 개최 선언이 있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최식 역시 오후 8시에 열렸다. 왜 중국인들은 이처럼 8자를 좋아할까? 8은(八:bā)로 발음한다. '八'의 중국어발음이 '发财', 즉'돈을 번다, 재산을 모은다'의 '发'(fa)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민족은 없다. 그러나 돈에 대한 중국인들의 애착은 그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중국 사람들은 유대인 못지 않게 재물에 집착이 강하고 상술에 뛰어나다. 계산이 빠르며 실이익을 따진다. 따라서 새해 인사로 우리처럼 "복 많이 받으라"는 두루뭉술한 말 대신 "공시 파 차이(恭喜發財:돈 많이 버세요)"라는 직접화법을 좋아한다.

5. 은혜는 갚되 원한은 복수하는 문화

"부(父)의 원수는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고, 형제의 원수는 병기를 거둬들이지 않고 항상 휴대하고, 친구의 원수는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없다(父之讐, 弗與共戴天. 兄弟之讐, 不反兵. 交遊之讐, 不同國)." 이는 예기(禮記)에 나온 말이다. 중국처럼 복수가 일상화한 나라도 없다. '와신상담'(臥薪嘗膽), '절치부심'(切齒腐心), '도광양희'(豁光養晦), '굴요편시'(

掘墓鞭尸), '이혈세혈'(以血洗血)의 고사 성어는 복수를 지선(至善)으로 미혹한다. 우리는 중국의 사극이나 영화 등을 보면 부모님의 원한을 자녀들이, 사부님의 원한을 그 제자들이 대를 걸쳐 복수하는 장면을 보아왔다. 현대 중국인들도 이러한 정신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상대가 힘이 셀 때에는 타협을 하고 기회를 엿보지만 만만한 상대에게는 가차 없이 실력 행사를 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공(攻)을 세우기 위해 무리한 도전보다는 복수가 두려워 과(過)를 범하지 않으려는 생활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맺음 말

중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찬란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저들의 심중에는 유가(儒家)와 도가(道家)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유가의 상징은 네모로서 격식과 인의예지, 인간으로서 길을 규격화하며 형식을 중요시 한다. 거기에는 인간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반해 도가는 원으로서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와 회귀, 삶과 죽음을 한 축으로서 자연스럽게 본다. 일종의 운명에 대한 순응이라고 할까.

이로서 중국인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러므로 저들을 대상으로 선교나 사업을 하려면 서두르지 말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곳은 우리 땅, 우리 백성,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구세력을 비롯하여 많은 외세들이 중국에서 손 털고 나온 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생명의 씨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발아할 토양도 결코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rsong007@hanmail.net

드라마 신약 (5)



김덕수 목사 (성서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회에 우리는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과 두 번째 유월절에 하셨던 사역의 현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은 2차 갈릴리 사역과 세 번째 유월절에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함께 가 보겠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본 동네가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무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 아니면 유대 지역, 이렇게 두 곳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확정(눅6:12-19)하시고 팔복이 포함된 산상수훈(마5-7장)을 베푸십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강령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제하지만, 새롭게 주신 산상수훈은 사람의 중심과 마음까지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간음은 행위를 따져 물었지만, 산상수훈에서는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렇기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행동지침이라는 것을 알려주

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갈릴리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눅7:11-17)과 회당장 아이로의 딸(눅8:40-51)을 살려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유월

2차 갈릴리 사역과 세 번째 유월절 12제자를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며 유대사역 준비

절 때 이미 자신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5:20-21). 그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아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며 증명이 됩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순회전도를 하시고, 이때 설교하신 내용들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13장-).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 사건

이즈음 세례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마14:1-12). 세례요한이 참수를 당하자, 세례요한을 따르던 청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때 헤롯은 예수님께로 군중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보고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라고 하면서 몹시 당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 갈릴리 벳새다 들녘으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세 번째 유월절에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킨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군중들은 장정만 5천명(마14장)이었습니다. 노약자들과 여인들을 다 합하면 족히 1-2만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군중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육신의 떡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이요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떡을 원했던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차 갈릴리 사역과 세 번째 유월절 12제자를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며 유대사역 준비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들만에 있는 그들에게 만나와 같은 떡을 먹이시며 생명을 살리는 진짜 떡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믿는다'는 것입니다(요5:29,

36, 40, 47).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과 마신다는 것은 굶어(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내 스스로는 그 갈증(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생수)을 섭취하여 그 음식(생수)의 에너지로 생명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 자신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을 우리 안에 섭취(영접)하면, 그 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원했던 육신의 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은 후

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요6:66).

제자들과의 MT

오병이어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대중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외곽지역(가이사라 빌립보 등)으로 다니시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채 1년도 안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와 특별한 훈련을 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확인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기독교론(基督論, Christology)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론과 종말론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에 의하여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종말의 때까지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마 16:18-28)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마16:21). 이것을 '1차 수난고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론, 교회론, 종말론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고 두 번째 수난고지(마17:22-23)도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심

이렇게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도 2차 갈릴리 사역을 이어가시는 동안 시간은 흘러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마다(세 번째 유월절은 예외) 예루살렘으로 가서 특별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유월절 약 6개월 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유월절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대에서의 사역도 완성하시고 싶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있었던 일들과 초막절, 수전절에 하셨던 설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문, 세상의 빛”이 되는 성전

퀸즈장로교회 새 성전 착공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다민족 화종들을 위한 새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교인들은 지난 9월 21일 새벽기도를 마친 오전 7시 건축부지에서 착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마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새성전 착공 감사예배는 김용생 장로 사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라는 허경화 장로의 기도에도 이어, 사회자의 성경봉독(느2:18) 후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감격에 벅차 떨림으로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한 퀸즈장로교회는 1대 장영춘 목사님의 인도로 계속 성장 발전함으로 파킹장이 필요하게 돼 이곳저곳에 파킹장을 준비해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파킹장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었다”며 “힘들었지만 주님의 명으로 알고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본문을 설명하며 이번 성전 건축의 2가지 목표는 첫째, 하늘의 문이 될 것, 둘째,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국 목사는 “2014년 6월 새벽기도 자리에서 ‘비전을 담은 건물을 지으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다”며 “오늘 감사예배까지 5년여 동안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마음을 모았던 이곳에, 착공과 더불어 웅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자리,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하는 자리로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구 목사(총신대 명예교수)는 “38년전 장 목사님



김성국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새성전 조감도 시는 “모든 민족을 위한 새 성전”이라는 말에 감동받았다”며 “미가서 7장 11절에 성벽을 건축할 때 지경이 넓어졌다는 말씀처럼, 지경이 넓혀짐은 은 누옥이 축하한다”고 축사했다.v

이어 김수산 장로의 건축 경과보고, 남정욱 장로의 광고 그리고 홍춘식 목사

하인사를 했다. 정연학 설계사는 “새 성전이 본관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옥외공간도 시각적인미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RMA와는 2018년 12월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말 완공을 예상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퀸즈장로교회 찬양대가 설교에 앞서 찬양하고 있다.



착공예배를 마치고 참석인사들과 교인들이 첫삽 뜨기를 하고 있다.

의 초청을 받고 퀸즈장로교회에 왔을 때가 본당이 건축될 때였는데, 이번에 새성전 건축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세계의 관문 뉴욕에서 하늘 문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라”고 축사했다.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

(KAPC 뉴욕노회장)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착공 기념행사는 박정봉 집사 사회로 내외빈을 소개하고 존 리우, 피터구 의원과 설계회사 Haak Architecture 정연학 대표, 시공사 Roe Messner & Associates(RMA) 대표가 축

에는 제2예배실과 교실, MEP룸이 있으며, 1층에는 어린이놀이방, 친교실과 주방, 2층에는 본 예배실과 사무실, 3층에는 기도실, 방송실 4층엔 회의실 등으로 설계됐다.

(유원정 기자)

원로칼럼

완주자의 노래(2)



박중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서울 근교 신도시에 개척을 시작한 목사가 있었다. 천가와 처갓집의 도움으로 상가 지하를 임대하고 매달 생활비 역시 양가와 친구 교회들의 도움으로 메우고 있었다. 개척 2년이 지났지만 회집 수는 가족을 합해 50여 명을 넘지 못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빛을 내서 버스를 사야겠다고 했다. 1층과 3층에 다른 교회가 입주해 있는데 버스를 통원해 교인을 실어 나르는 중 몇 사람이 버스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는 것이다.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고 목사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다.

버스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오가는 길을 도와주는 것은 형편만 허락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빛을 내 버스를 사야 하는 경쟁현실과 교인 뽑아가는 비윤리다. 옆에 있던 교회가 문을 닫거나 떠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회윤리가 그립다.

이민 목회자와의 대화가 떠오른다. A목사는 미국 서부에서 30년째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다. 한국 목회도 다를 바 없지만 이민 목회는 그 현상이 척박하다면서 들려준 이야기다. 이민 목회 초기 교인 하나는 천금보다 귀했다.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로부터 자기네 교회를 출석하던 아부게 집사네가 이민을 가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부게 집사네가 공항에 도착하는 날 마중을 나갔다. 집사부부와 아이들 3남매 다섯 식구였다. 목사 사택으로 데리고 가 머물게 했고 먹고, 재우고, 짐 찾아 마련해주고, 전화 연결해주고, 아이들 학교 찾아주고, 그들이 목사 집에 머문 기간은 한 달이 넘었다. 교인 다섯 명이 붙어난 기쁨 때문에 모든 불편을 감수했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 입만 열면 “목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를 되풀이 했다.

목사 사택을 떠나 자기 집으로 이사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커피숍 운영을 시작하기까지 1년여 세월이 흘렀다. 1년이 지난 어느 주일부터 얼굴이 보이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집 근처 교회로 옮겼다는 것이다. 곧바로 찾아갔다. 그러나 아부게 집사 대답은 “은혜 있는 교회로 가겠다”였다. 돌아오는 길에 목사는 배신감과 울분을 억누르지 못해 엉엉 울었다.

이런 일을 심어 차례 겪고 난 후 그가 터득한 목회 원리가 있었다. 그것은 개문목회였다. 들어오는 문도 열어 놓고 나가는 문도 열어 놓는 목회다. 그 이후에도 속이 아리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도를 터득한 도사처럼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개문목회의 장점을 통풍과 소통이라고 했다. 제멋대로 들어오고 알아서 나가면 통풍이 잘되고 소통이 원활해 좋다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교인은 천금도 만금도 아니다.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목사의 천만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교인은 교인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좋은 교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다. 목회를 목양이라고 한다. 양을 키우는 행위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온갖 정성과 기능을 쏟고 비법을 동원해도 양이 소가 되고 금덩어리가 되는 경우는 없다. 양은 양이 될 뿐이다. 그런데 목회자의 착각은 양을 키우면 소가 되고 황금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황금송아지 숭배의 잘못에 빠지게 된다.

완주자의 노래, 멋진 마침표

지인은 많다. 그러나 친구는 지인의 숫자에 비해 적다.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안과 밖으로 대별된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동기도 발상도 내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누가 위기를 만들고 있는가? 위기 제조공장이 따로 있는가? 아니다. 나 때문에 위기가 생성되고 증폭되고 있다. 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그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위기가 왔고 커지고 있다는 오판의 눈에 빠져 있다. 아담과 하와와 범죄사건 중 주목할 것은 ‘핑계’다. 핑계가 뭐냐? 그것은 떠넘기기다. 떠넘기기 바이러스는 오늘도 각 분야에 침투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유배, 종교동행: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예배: 새벽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림절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유배, 유배: 오전 10:45 (주일)오전 11:00, (금)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erg R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79-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3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1),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영어로 보는 성경 (36)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Nahum 1:14

14) The LORD has given a command concerning you, Nineveh: "You will have no descendants to bear your name. I will destroy the images and idols that are in the temple of your gods. I will prepare your grave, for you are vile."
(NIV 2011)

WORD & IDIOM

* command: 명령 * concerning ~: ~에 관하여, ~대하여 * descendants: 자손(들) * bear: 퍼뜨리다, 전파하다 * destroy: 파괴하다, 부수다 * images: 신상(들), 형상(들) * idols: 우상(들) * temple: 신당 * gods: 신들 * prepare: 준비하다 * grave: 무덤 * vile: 비열한, 아비한

GRAMMAR

14) The LORD has given a command concerning you, Nineveh:

주께서 명령하셨다 너 니느웨에 관하여

"You will have no descendants to bear your name."

너는 자손들을 갖지 못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전파할 → 주께서 너 니느웨에 대하여 명령하셨다: 너는 너의 이름을 전파할 자손들을 갖지 못할 것이다.

* <has given>은 현재완료시제이다. <The LORD has given a command>와 <The LORD gave a command>를 우리말로 할 때는 큰 차이가 없이 <주께서 명령하셨다>로 번역할 수 있지만 영어표현의 의미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단순과거형인 <gave>는 과거에 명령한 것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그 명령이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has given>의 경우는 과거에 한 그 명령이 지금도 유효한 상태를 나타내 준다.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 내용은 (" ") 안에서 알려주고 있다. * <to bear your name>은 <to +V>는 <descendants>를 위해서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I will destroy the images and idols
나는 파괴할 것이다 그 신상들과 우상들을
that are in the temple of your gods.
너의 신들의 신전 안에 있다 → 너의 신들의 신전에 있는 그 신상들과 우상들을 나는 파괴할 것이다.

* <that>은 <the images and idols>를 선행사로 취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that>이하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 쓰인 Be동사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의미이며 <are>가 쓰인 것은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시제를 일치시킨 것이다. *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God>으로 쓰며, 그 밖의 형상이나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로 표기할 때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god>으로 쓴다.

I will prepare your grave, for you are vile."
나는 너의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비열하기 때문이다. → 네가 비열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or 나는 네 무덤을 준비할 것인데 왜냐하면 네가 비열하기 때문이다.

* <prepare your grave, for ~>에서 <for> 이하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부사절이다. 따라서 전치사 <for>를 <becaus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참고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를 위하여 준비하다>라는 의미의 <prepare A for ~>와는 다른 점에 유의하자.

STUDY & THOUGH

■ 본문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에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다. 히브리적 관점에 있어서 '이름'이란 어떤 존재의 존재 자체와 인격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름을 없애 버린다는 것은 그 존재를 완전히 말살시킨다는 의미로서 가장 치명적인 저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이름을 계승할 후손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니느웨로 상징되는 앗수르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고대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불렸다. 따라서 패전국의 신전이나 신상을 멸절시키는 것은 적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문은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다. 앗수르는 세속적으로는 비록 그 당시 최강국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미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이다.

■ Let us look back and see whether we are deserving of God's calling.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jameshur63@hotmail.com

월 교회의 승영(히13:20-21)찬21장

교회는 24장로와 같이 구속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예배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도는 양들의 큰 목자,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했습니다(20). 앞서 거짓교훈에 빠져 찬양을 잃은 교회에게 사도는 영원히 찬양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평강의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했습니다(21). 성

자의 죽음을 살리신 성부의 구속행위는 영원한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교회의 발아래 상하게 하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셋째, 구속을 온전히 이루심을 찬양했습니다(21). 성부와 성자의 구속성취는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사도는 찬양을 올립니다(빌1:6참조).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최고의 찬양을 돌립니다.

화 사도의 권면과 문안(히13:22-25)찬26장

교회 초석인 사도들은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기회 날 때마다 권면과 위로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권면은 현재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구성원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디모데 한 개인이 받은 식방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는 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일원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교회와 관련을 갖기 때문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난관 속

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의 문안은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도는 디모데가 속히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와 함께 은혜의 증거로 그와 함께 교회를 문안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견고한 교회를 세웁시다.

수 야고보의 신문(약1:1)찬240장

야고보서는 교회가 항상 당면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그는 자신의 신문을 2가지로 밝힙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이요입니다. 구약의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 그리고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요 고백은 전통적 신앙 뿌리인 구약을 바로 깨달은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의 빛 아래서 구약을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주 예수그리스도의 종

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동일한 신앙을 가진 야고보는 동생이라 말하지 않고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는데 야고보는 그보다 앞서 예수의 메시 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흠어진 열두지파 곧 핍박받는 나그네 교회에게 사도적 권위로 문안합니다.

목 시험을 이기는 사도의 처방(약1:2-4)찬453장

율법주의의 영향으로 몸살을 앓으며 나그네 생활하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먼저 고난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시험은 기뻐할 일이라고 말합니다(2). 여기 시험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가리킵니다(마5:11-12). 그리스도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고, 베드로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벧전4:14). 그래서 신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천국을 경험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쁨이 나그네 길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쩌서 기뻐할 수 있는가요? 첫째 이유,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시련을 통할 때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둘째 이유, 고난이 인내의 인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복입니다.

금 기도가 시험을 이깁니다(약1:5-8)찬459장

인내를 이루기까지 시험을 당할 때 신자가 할 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5).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야말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6-7).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상대로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지혜를

얻게 합니다(마6:6). 셋째, 온전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8). 참 믿음의 기도란 진실한 마음으로 가식 없이 그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불신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이 진실한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드리고 주께 구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토 하늘 나그네의 처세술(약1:9-11)찬254장

고난당할 때 당면하는 의식은 하나님의 계심과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까요? 첫째, 낮은 형제는 그리스도 안의 이미 높아진 지위를 바라보고 주장해야 합니다(9). 어두움이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곳에 고정시켜 낙심된 생각을 던져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이미 선

줄로 생각하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은 신분을 생각함으로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10). 그때 자랑과 교만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뭍니다. 셋째, 심판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11). 모든 신자는 어디 머물든지 심판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의식으로 종말한 자가 세상을 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는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신학대학(원)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D.Min.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리더십철학박사 Ph.D. in Counseling 상담철학박사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u.gov/accreditation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인/터/뷰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박 목사

“지속적인 찬양 문화사역 되기를”

미서부 남가주 지역에 찬양을 통한 문화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 이하 원하트)가 설립된 지 5년을 맞았다. 피터박 목사는 준비기간까지 걸린 7년여 시간을 돌아보며 원하트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하트를 준비하면서 처음 시작은 완전히 문화사역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랑 컨셉이 비슷한 텐트미니스트리의 경우 크리스천음악인들이 펼쳐나가는 버스킹 공연인데 텐트의 경우 특정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로 사역을 하는 거라면 저희 원하트는 오직 크리스천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문화 사역이었습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원하트의 사역은 크리스천음악인들의 공연이며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를 비롯 동방현주, 인디밴드 블루앤블루 등의 공연을 기획했다. 또한 CCM 가수 양성을 위해 CCM루키라는 이름으로 복음성가대회도 개최했다.

2015년까지 LA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해온 원하트는 2016년 라미라다에 있는 갓스 이미지 사무실로 사역 장소를 옮겨갔다. 피터박 목사는 사역



피터박 목사

지의 변화가 사역의 변화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러한 변화는 문화사역에서 예배사역으로의 전환이었다고 언급했다.

“LA에 있을 땐 원하트와 함께한 멤버들의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층들과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음악이 좋아서 찾아온 친구들이라 음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역을 펼쳐나갔었어요. 하지만 옐렌지카운티(OC)로 사역지가 옮겨간 이후엔 예배

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로 멤버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역 역시 예배사역으로 전환이 됐다고요.”

피터박 목사는 사역의 전환기를 겪을 때가 원하트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됐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것은 함께했던 친구들이 시간과 거리문제로 함께할 수 없게 된 것과 새롭게 합류한 친구들이 오롯이 원하트 사역에 스며들게 되는 시간이

이었다고 밝혔다. “OC지역에 오니까 CCM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크리스천 문화사역에 대한 갈망도 LA에 비해 높은 거 같고요.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소스몰을 비롯해 교회모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크리스천문화에 대한 접근이 수월한 편입니다.”

피터박 목사는 OC지역으로 원하트가 옮겨온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원하트에 찾아온 친구들 중 과거 음악이 좋아서 뮤지션으로 활동했지만 여러 사정 상 포기해야 했던 자들, 결혼 후 사역에 대한 관심이 달라진 자, 나이가 들어 콘서트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진, 그러나 자신의 달란트를 찬양영주로

기성교회에도 화요기도모임이나 금요기도모임 등 기도모임이 있는데 원하트에서 굳이 기도모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피터박 목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원하트의 기도모임은 기성교회에서의 인도자의 리더로 하는 기도가 아닌 자유로운 기도다. 40-50분간 10-12곡정도 찬양을 하는데 중간 중간 말씀과 기도가 들어간다. 찬양할 땐 손을 들어서 하자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기에 어색해할 수도 있는데 1.5세와 2세대들은 자유롭게 예배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한 달에 한번 ‘세상문화의 중심에서 예배드리자’는 취지로 소스몰 야외무대에서 여는 찬양집회는 다양한 연령의 사 람들과 인종들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집회찬양에 영어찬양

회 때 함께 할 수 있는나고 물어오기도 합니다.”

지난 8월 10일에는 흑인 찬양인도자가 함께 했으며 부에 나팍의 히스패닉 사역자가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9월에는 타미워커의 막내딸이 찬양 인도자로 함께할 예정이다.

원하트는 또한 찬양음원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중순 음원이 출시된바 있으며 북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찬양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출시하고 나아가 한국의 사역자들과 교류를 통해 성장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CCM루키대회도 다시 열 계획이다. 현재 원하트미니스트리는 31명의 스텝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풀타임 스텝은 아니지만 관계를 갖고 비정기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커뮤니티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피터 박 목사는 “많은 사역 단체들이 탄생하지만 지속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원하트가 잘 버텨오면 좋겠다”며 “원하트의 사역이 저로 마무리 되지 않았으면 한다. 다양한 리더가 세워져 공존하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음악사역이 좀 더 발전해 남가주 청년들과 학생들이 찬양과 관련된 음악을 해오 비전이 있다는 것이 심어지게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지역 읍기고 음악사역에서 예배사역으로 방향 전환 화요기도모임, 소스몰 야외찬양, 마커스와 찬양집회

드리고 싶은 자들”이라며 “이러한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 원하트의 사역이 예배중심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원하트는 화요기도모임을 비롯, 소스몰 야외공연장에서 찬양콘서트, 마커스와 함께하는 찬양집회 등이 있다.

화요기도모임은 찬양예배 형식으로 기도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을 하기도 하고 게스트 인도자를 초청해서 찬양인도를 하기도 한다. 간혹 외국인 인도자와 연주자가 초청돼서 같이 연주하고 찬양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니 다양성을 추구해서 외국인 인도자가 함께하기도 해요. 그러다보니 집회 후 외국인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저희 집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그레이브스병

너무 많은 갑상샘호르몬 생성이 문제

갑상샘은 목의 앞쪽, 흔히 아담의 사과(Adam's apple)라고 불리는 부위 아래에 위치한 길이 4-5센티미터, 넓이 1-2

센티미터, 무게 30그램 정도의 나비 모양 내분비기관이다. 이 장기에서 분비되는 갑상샘호르몬은 체온을 유지하고 열을

생산하고 뇌와 뼈의 발육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상샘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산(기능항진)되거나 적게 만들어지면(기능저하) 신체의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40대 중반의 가정주부 김모씨는 3개월 전부터 눈이 건조하고 물체가 두 개로 보였다. 지난 6개월 동안 김 씨는 몹시 피곤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하면 몹시 피곤해 했다. 식욕은 좋지만 몸무게가 6개월 동안 5킬로그램 줄었다. 또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최근에는 설사가 자주 나왔으며 월경 주기도 불규칙적이었다. 검진상 김 씨의 혈압은 110/80mmhg으로 정상이었으나 맥박은 분당 103회로 빨

랐다. 김 씨는 육안으로 보기도 안구가 돌출되어 보였고 갑상샘이 커져 보였으며 미세한 손떨림이 보였다. 청진상 심장 맥박은 빨랐지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혈액 검사상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김 씨는 갑상샘 항진증의 일종인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받고 항갑상샘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며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베타차단제를 함께 복용하도록 했다. -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은 갑상샘 항진증의 가장 흔한 형태인데 이는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신체 내에서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는 항체가 생기면서 너무 많은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어내

는 병을 말한다. 주로 발병하는 나이는 20-40세로 여성에서 더 흔하지만 남성에서도 발병할 수 있고 노인층에게도 생길 수 있다.

그레이브스병의 진단은 병력과 혈액검사로 진단하는데, 필요하면 초음파나 스캔을 하고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는 먼저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항갑상샘 약물치료를 시작해서 2주 정도 지나면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다. 치료기간은 평균 2-3년인데 중간에 좋아져서 약을 끊을 수 있지만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

항갑상샘 약물만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는 방사선을 내는 요오드를 정제나 물약으로 만들어서 복용하면 요오드가

갑상샘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해서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방사선의 양은 아주 적어서 암을 유발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평가해 널리 시술된다.

다만, 이 시술을 한 환자의 대부분에서 갑상샘 저하증이 생기고 입산부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또 효과를 보려면 평균 6-18주가 걸리므로 심장이 약한 노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갑상샘 항진증은 젊은 남성에서 탈모 및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청소년에서는 정서불안, 학업부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Glory to God'



Zion Gospel Missionary Church

시온복음선교교회

제 33주년 기념 찬양 감사예배

노숙자, 빈민구제, 구호, 치료봉사 회복을 위한 사역 33주년을 맞이하여 주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예배에 초대하오니 새 아침의 회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Date 일 시: 2019년 10월5일(토) 오전7시(맥아더 공원), 오후3시(선교회)
Place 장 소: 시온복음선교교회
Zion Gospel Missionary church
3113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9

문의: 323-734-7177, 213-703-5412, 213-858-6769
kimtae1986@gmail.com
대표 글로리아 김 목사 (Gloria Kim)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시편 132:13-14)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때라 정한 기한이 음이니이다 (시편 102:13)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닳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17:14)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11:1-2)

주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22:21)

